

전국 휘호 대회

2017 제28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수상작품집

제28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전국 휘호 대회
제19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전국청소년휘호대회
제2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전국손멋글씨대회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



발 | 간 | 사

국화의 향기가 젖어드는 가을 추사김정희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서예의 본향 충남 예산의 추사고택 추사묘전에서 10월14일, 15일 양일간 전국의 청소년을 포함한 서예인 800여명이 서예예술을 통해 추사선생님의 법고창신의 정신을 이어받은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쉽게도 어려운 현장회호라는 동양문화의 특성상 2년 동안 개최되었던 외국인 부문의 참가신청이 미진하여 개최가 안되었고, 이로 인한 전체 홍보가 부족하고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사선생님의 예술혼을 기리며 추사회호대회를 위해 같고 닮은 기량과 함께 예산의 추사고택을 방문하려는 전국 서예인들의 기다림의 염원 덕에 추사고택의 열기는 예년과 다름없었습니다. 10월 14일에는 제19회 청소년 회호대회와 날로 기량이 늘어가고 있는 제2회 손멋글씨(캘리그래피)대회를 진행되었고 10월15일에는 기라성 같은 전국의 500여 명의 서생들이 참여 한 전국회호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고 그동안 우천으로 인하여 실내행사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드높은 가을 하늘이 추사고택을 더욱 밝게 빛내주어 한류문화의 초석을 낳은 대회의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상으로 상격이 승격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상이 수여되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서예등용문이자 서예대전으로 발돋움하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온 전국의 서예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서예예술을 통한 한류문화 재창조에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도록에 실린 입상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의 민족으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곳곳이 이어온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과 서예인들의 궁지에서 비롯된 산유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해마다 발전하는 추사 추모 전국회호대회에 지대한 관심으로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 홍문표 국회의원님, 황선봉 예산군수님과 예산군의회를 대표하여 권국장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을 올리며 특히 추사김정희선생님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는 자리인 예산군 추사고택에 방문 하고 대회에 참가해주신 전국의 서생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예 산 문 화 원 장
공학박사 김 시 운

축 | 사



떠나보내는 아쉬움 보다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희망이 넘치는 축복의 달 12월입니다.

제19회 전국청소년회호대회 및 제28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전국회호대회장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여 멋진 회호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하신 전국의 書畫 작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사전국회호대회는 그동안의 역사와 전통이 말해주듯 대한민국 최고의 회호대회로 거듭나고 있으며,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특히 요즘은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손멋글씨(캘리그래피) 대회가 작년에 이어 2번째를 맞이하여 많은 캘리그래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추사 선생은 일찍이 중국 燕京에 가서 翁方綱과 阮元으로부터 書法과 金石文의 감상법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당대의 유명한 서화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書法을 연마하고 창작하여 추사만의 독특한 서체인 “추사체”를 완성한 동방 최고의 書聖입니다. 그는 벼루 열 개를 구멍 내고 붓 천 자루가 많아지도록 서예에 쏟은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추사 선생의 드높은 학문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추사가 태어난 예산에서 매년 전국회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내년에도 더욱 훌륭한 전국의 서화 작가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연마한 서화예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매년 전국회호대회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황선봉 예산군수님, 권국장 예산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수고해주신 김시운 예산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사)추사김정희선생기념사업
회장 이 일 구



오곡백과가 풍성한 천고마비절에
제28회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에
입상하신 서생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옛말에 소년문장가는 있어도
소년 명필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서예를 통하여 인내력과
끈기를 기르고 정신력을 집중하므로써
서예를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생활문화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와같은면에서 추사선생을 기리는 휘호대회는
전국적으로 권장할 사업이라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신
김시운 예산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추사 김정희선생추모 전국휘호대회
초대작가회장 심 찬 응

2017년 12월

심 사 평



예산문화원이 주최한 제28회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에 심사를 마치고 그 심사결과와 소감을 종합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상 수상자를 비롯하여 모든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작을 선정함에 심사위원 전원이
고심하고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어려운 결정으로 탄생된 작품들입니다.

참여 작가수가 상당히 많아 추사백일장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느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실력을
갖춘 작가들이 많이 참여 하였고 수준급의 수작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공모전 운영상 낙선작을 다수 낼 수밖에
없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장원을 한 이윤기의 문인화 작품은 변함없는 군자의 향기를 담은 소나무의 고고한 기상을 철선묘법으로 강건함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특별상 한문서예의 양찬호는 탄탄한 획과 결구며 장법에도 무리가 없었으며 추사체 차상들도 범고창신의 수작들
이었습니다. 아쉬움은 좀 더 다양한 서체와 폭 넓은 작품 즉 옛 것을 충실히 연마하고 작가의 개성이 담긴 예술
적인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으면 합니다.

휘호대회는 현장에서 과감 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능력 있는 작가를 발굴하는 신선한 장점이 있으며 수상을 한
작가는 이를 통하여 대나무의 마디처럼 성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권위를 구축하며 미술 발전의 초석이 되고 서예사에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추사 김정희선생추모 전국휘호대회
심사위원장 김 문 식

명 제(命題) 일반부

看山何處好 간산하처 호
扶旺古禪林 부왕고선림
日落峯如染 일락봉여염
楓明洞不陰 풍명동불음

산구경은 어느 곳이 좋을까
부왕(扶旺)이란 오랜 사찰이라네
해가 지며 산봉우리 물들인 양
단풍 밝아 골짜기는 어둡지 않네

〈부왕사(扶旺寺)〉, 김정희(金正喜)
*扶旺寺(首聯, 頷聯 출전:《阮堂集》 권9) * '부왕사'는 북한산에 있던 사찰이다.

空山不見人 공산불견인
但聞人語響 단문인어향
返景入深林 반경입심림
復照青苔上 부조청태상

빈산에 사람 보이지 않고
사람소리 메아리만 들려올 뿐
석양빛이 깊은 숲으로 들어와
다시 푸른 이끼 위에 비친다

〈녹채(鹿柴)〉, 왕유(王維)
鹿柴 녹채 (출전:《唐詩三百首》)
* '녹채'는 왕유의 망천(綱川)별장 주변의 지명이며, '柴'는 '寨(寨)'와 통용한다.

人生無別法 인생무별법
着衣與喫飯 착의여끼반
爲治無異術 위치무이술
使各得其願 사각득기원

인생엔 별다른 방법 없네
옷 입고 밥 먹는 것일 뿐
정치엔 별다른 기술 없네
저마다 소원 이루게 하는 것일 탄뿐

奉送蔡大夫樊巖出按北藩 봉송채대부번암출안북번
(제10수 출전:《탄만집》)
(대부(大夫)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이 함경도관찰사로 나가는 것을 봉송하며)
(제10수), 이용휴(李用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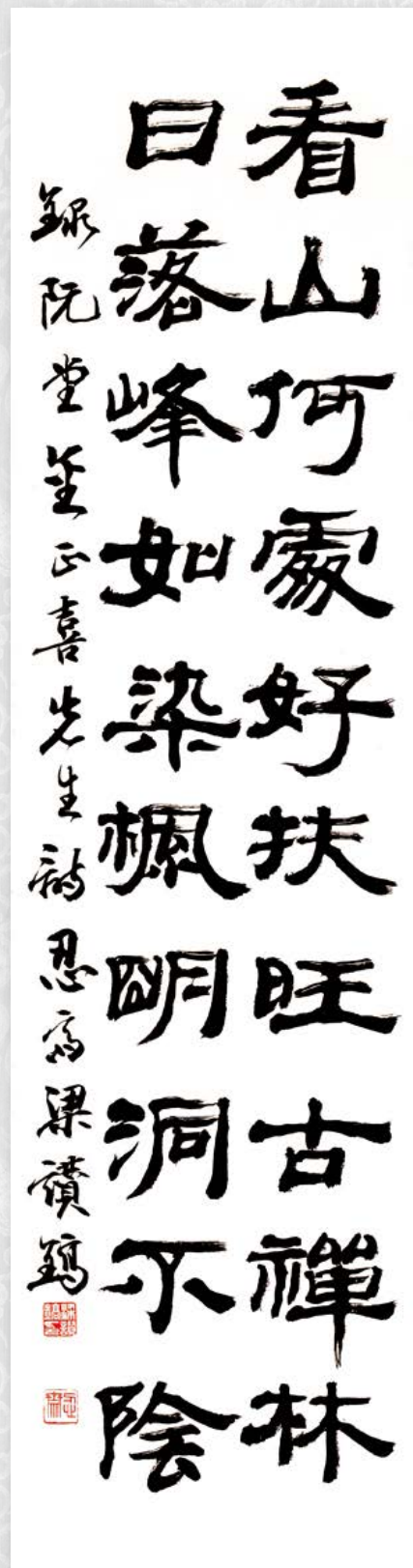
| 심사위원 |

한 글 문관효 이상문 임창웅 정복동 조춘자 최재연 홍희선
한 문 김서형 김선원 박양재 정태희 정현만 최석봉 한미경
문 인 화 공명화 김근희 김문식 김수열 김용복 장영혜 정용균
추 사 체 강평환 백정림 오윤선 윤석명 최영덕



일반부 (장원, 특별상, 차상, 차중, 차하)

장 원	이윤기	문인화	차 중	이미란	한 글	차 하	강정숙	한 글
				여명화	한 글		손주영	한 글
특별상	양찬호	한 문		박영옥	한 문		이승주	한 글
				육심호	한 문		유성준	한 문
차 상	최아현	한 글		장선영	문인화		유근복	한 문
	김승태	한 문		이미자	문인화		이윤정	한 문
	안은미	문인화		이덕기	추사체		최정화	문인화
	신현구	추사체		전인권	추사체		김인수	문인화
							이윤하	문인화
							윤정희	추사체
							최형남	추사체
							서명식	추사체



양 찬 호



이 윤 기



안 은 미



빈상에 사랑보이지 않고 사랑스럽
아리만큼 사랑스럽고 양반이
로움을 어와다 시복부의 위
부친

최 아 현



人生無別法著衣與與飯
爲治無異術使各得其顛

丁酉仲秋 梅峯中鉉九

신 현 구



看此何處好扶杖
日出落峯如染楓
明洞古不禪林

丁酉秋 秋史先生詩 雲峯金勝泰

김 승 태



이 미 자



장 선 영



민
상
에
사
랑
보
이
지
않
고
사
랑
느
리
며
아
리
만
들
려
주
실
것
이
기
대
어
있
습
니
다
로
들
어
와
나
시
작
했
어
기
의
도
비
침
나

2017년 12월 15일 여명화 작



여 명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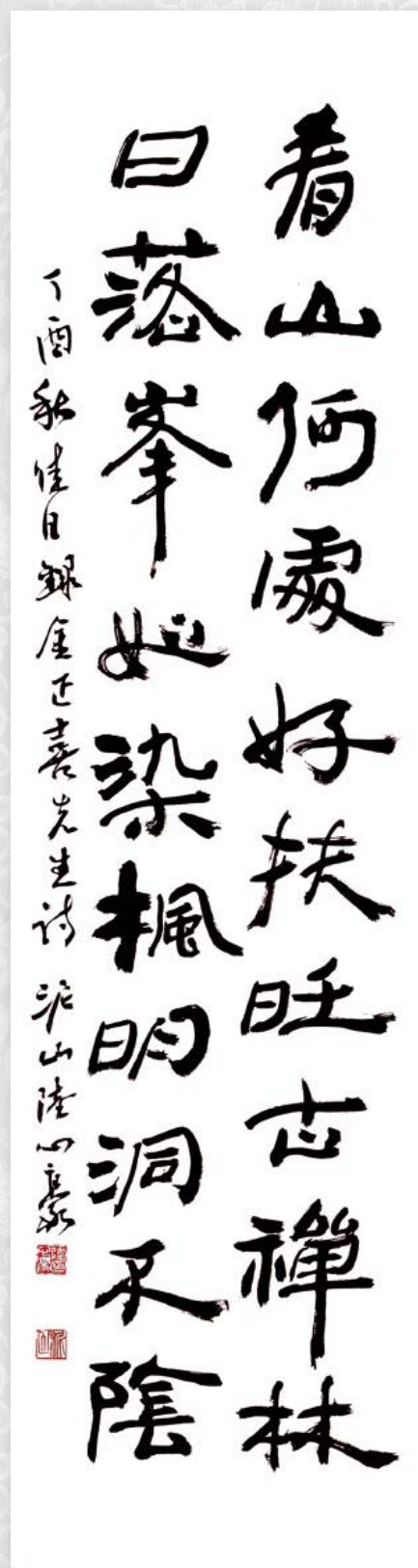


민
상
에
사
랑
보
이
지
않
고
사
랑
느
리
며
아
리
만
들
려
주
실
것
이
기
대
어
있
습
니
다
로
들
어
와
나
시
작
했
어
기
의
도
비
침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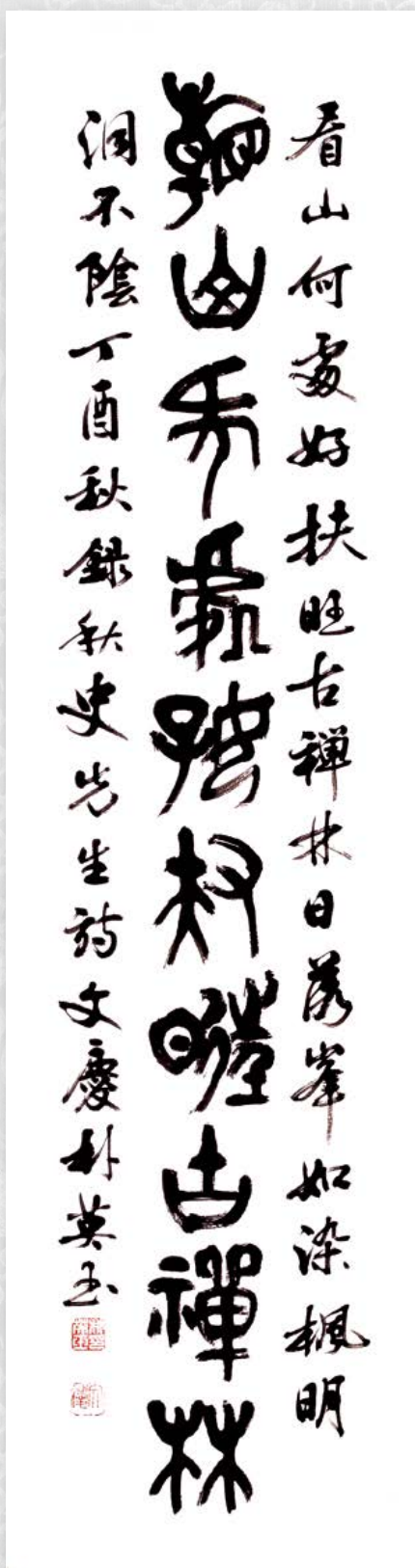
2017년 12월 15일 이미란 작



이 미 란



육 심 호



박 영 옥



看山河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峰如染楓明
洞不陰

丁酉秋 芳村 全仁權

전 인 권



看山河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峰如染楓明
洞不陰

丁酉仲秋 節長岩 李德基

이 덕 기



김인수



이윤하



최 정 화



빈상에 사랑보이지 않고 사랑소리메
아리만들려울뿐 찬양빛이길은늘으
르들어와라 시끄럽이끼위에비칠라

강정숙

강 정 숙



인생에 별다름이 없었네 웃음이 밝
먹는 것이 일로 칭찬이 별다름이 없
네 처마나그림이 벽에 허는 조그마
인물로

정유년가을추사김정희서 칭희이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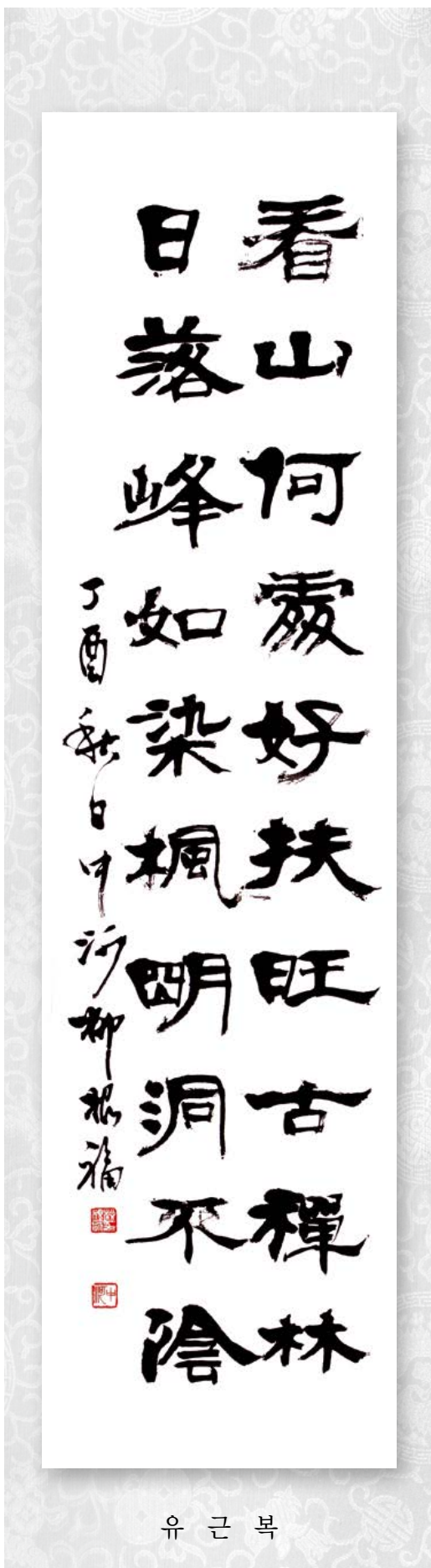
이 승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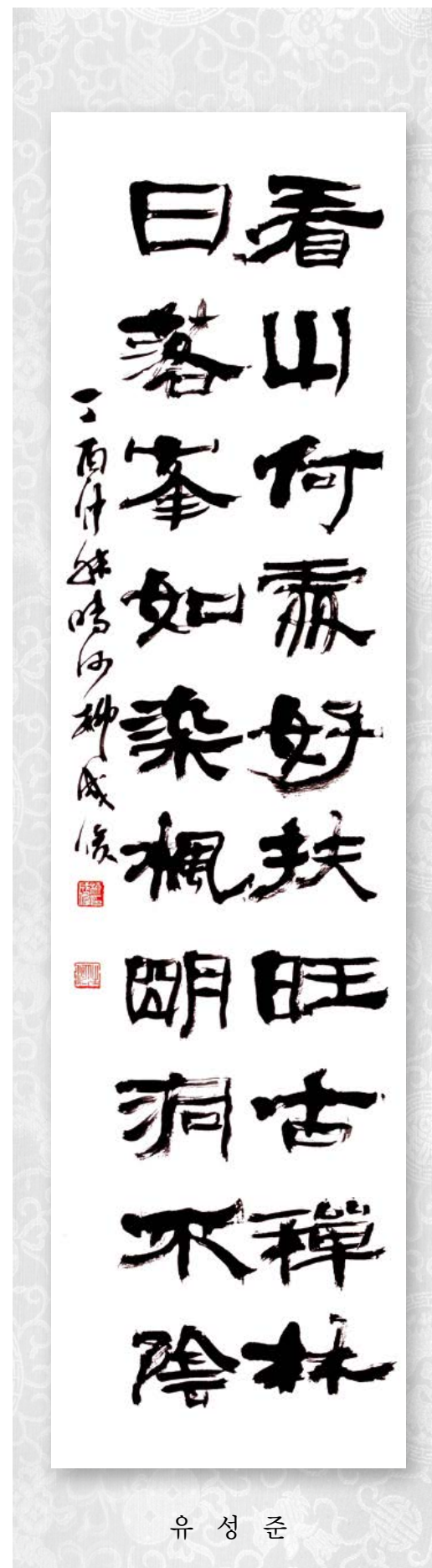
상수정옹이 오기까지 병을 앓아
행사찰이 각처에 가지며 산봉우리
인양난로에 맑아 날씨가 온
추사김정희가을추사김정희서 칭희손주영



손 주 영



유근복



유성준



看山河處好扶旺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年寒露節錄秋史先生詩素蓮李之植

이 윤 정



看山河處好扶旺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年秋佳之節錄園徐以植

서 명 식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峰如染楓明洞不陰

錄秋史先生詩扶杖寺丁酉秋義甫崔炯男

최형남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續秋史揮毫大會 石田尹貞姬

윤정희

명 제(命題) 일반부

看山何處好 간산하처 호
扶旺古禪林 부왕고선림
日落峯如染 일락봉여염
楓明洞不陰 풍명동불음

산구경은 어느 곳이 좋을까
부왕(扶旺)이란 오랜 사찰이라네
해가 지며 산봉우리 물들인 양
단풍 밝아 골짜기는 어둡지 않네

〈부왕사(扶旺寺)〉, 김정희(金正喜)
*扶旺寺(首聯, 頷聯 출전:《阮堂集》 권9) * '부왕사'는 북한산에 있던 사찰이다.

空山不見人 공산불견인
但聞人語響 단문인어향
返景入深林 반경입심림
復照靑苔上 부조청태상

빈산에 사람 보이지 않고
사람소리 메아리만 들려올 뿐
석양빛이 깊은 숲으로 들어와
다시 푸른 이끼 위에 비친다

〈녹채(鹿柴)〉, 왕유(王維)
鹿柴 녹채 (출전:《唐詩三百首》)
*‘녹채’는 왕유의 망천(綱川)별장 주변의 지명이며, ‘柴’는 ‘寨(寨)’와 통용한다.

人生無別法 인생무별법
着衣與喫飯 착의여끼반
爲治無異術 위치무이술
使各得其願 사각득기원

인생엔 별다른 방법 없네
옷 입고 밥 먹는 것일 뿐
정치엔 별다른 기술 없네
저마다 소원 이루게 하는 것일 탄뿐

奉送蔡大夫樊巖出按北藩 봉송채대부번암출안북번
(제10수 출전:《탄만집》)
(대부(大夫)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이 함경도관찰사로 나가는 것을 봉송하며)
(제10수), 이용휴(李用休)

| 심사위원 |

한 글 문관효 이상문 임창웅 정복동 조춘자 최재연 홍희선
한 문 김서형 김선원 박양재 정태희 정현만 최석봉 한미경
문 인 화 공명화 김근희 김문식 김수열 김용복 장영혜 정용균
추 사 체 강평환 백정림 오윤선 윤석명 최영덕

일반부 (특선, 입선)

문인화

특 선	조경선	김영수	우도규	함은미	박양신	여정숙	양희정	이동경	정다정	신미림	추은희	김수정	박영자
입 선	임정신	김옥남	채정숙	김신규	이원숙	이복형	추재환	김정수	양경희	김재구	김현희	서정순	이정호
	이규숙	박순동	배숙자	김인자	이원숙	이복형	추재환	김정수	양경희	김재구	김현희	서정순	이정호
	최종고	백정희	박부승	김영준	채영순	남철우	김나현	유미형	김승숙	함귀문	문성인	최미자	권영만
	고현정	박미희	김순복	홍순복	조경선	최혜자	강영안	이경호	이영순	양영임	김향배	최준모	최인자
	백희영	김난희	이정민	곽재희	안광희	박은순	천건수	오석구	최승우	정낙일	최희욱	전순진	이미란
	서동철	최은화	홍은순	최광석	이은화	김기우	차태운	서학진	임복택	정수복	김영오	이순희	김은희
	이인영	백미혜	유정이	박영혜	최익진	정영옥	한재길	여경란	김경숙				

한 글

특 선	최성희	이혜원	김소진	윤재기	이윤숙	이문석	이명섭	이수연	이병섭				
입 선	조효준	정희영	김인자	이진숙	이미자	형성하	노형영	배규한	조희원	김기숙	박명옥	이성옥	김영옥
	최옥선	윤순례	조경애	문경희	이여원	임명남	홍경자	한재식	이기택	이선자	최정숙	정순환	이문자
	조향숙	이영신	최은실	정선영	이중선	박광모							

한 문

특 선	이재택	한재식	윤영자	차호준	김기봉	박광모	김종순	김상년	왕명숙	임덕규	복진창	강윤구	김순기
입 선	강재숙	이순규	김남일	김정보	구보홍	박오신							
	박준성	최영남	최창길	오진실	허정희	박순도	문종명	이동희	송유근	이중휘	송경녀	김미소	차경숙
	조득임	권정구	박순상	김성환	한상완	조선명	양재량	윤춘근	원유덕	김순덕	정서윤	서득구	안주선
	이정호	김인자	장한섭	이수빈	문치호	임부택	배덕미	연기화	이강우	김유정	주미라	곽경진	이보희
	염정례	김정환	이미숙	송이슬	정명세	장영훈	이강천	윤인우	조홍범	한용운	박동구	정금숙	최진규
	복달수	차태운	홍순규	주철호	한길웅	김황섭	윤완남	정구면	전권선	좌혜정	이재혁	김영섭	김한식
	이혜순	최정환	정갑순	이현호	인연환	류홍선	김세영	김선영	신현상				

추사체

특 선	전병문	최규영	최수식	강병호	김희식	김충균	박영태	신두균	방철진	문종운	조종환	최병인	홍주열
입 선	정희숙	양희창	이준서	김길순	김한용	원완희							
	박하숙	이규배	송승훈	이재형	이준용	위순이	김상곤	고찬희	장천수	최재풍	김종수	이경수	김영현
	박천영	최군욱	박종후	김오경	이웅배	조국영	김영호	곽윤성	송인분	이태호	한태섭	황규홍	류만환
	문동국	안기영	이순하	조춘민	조경순	김정미	김현진	구연춘					



김 수 정



김 신 규



김 영 수



김 옥 남





박 양 신



박 영 자



신 미 립



양 희 정





여 정 숙



우 도 규



이 동 경



임 정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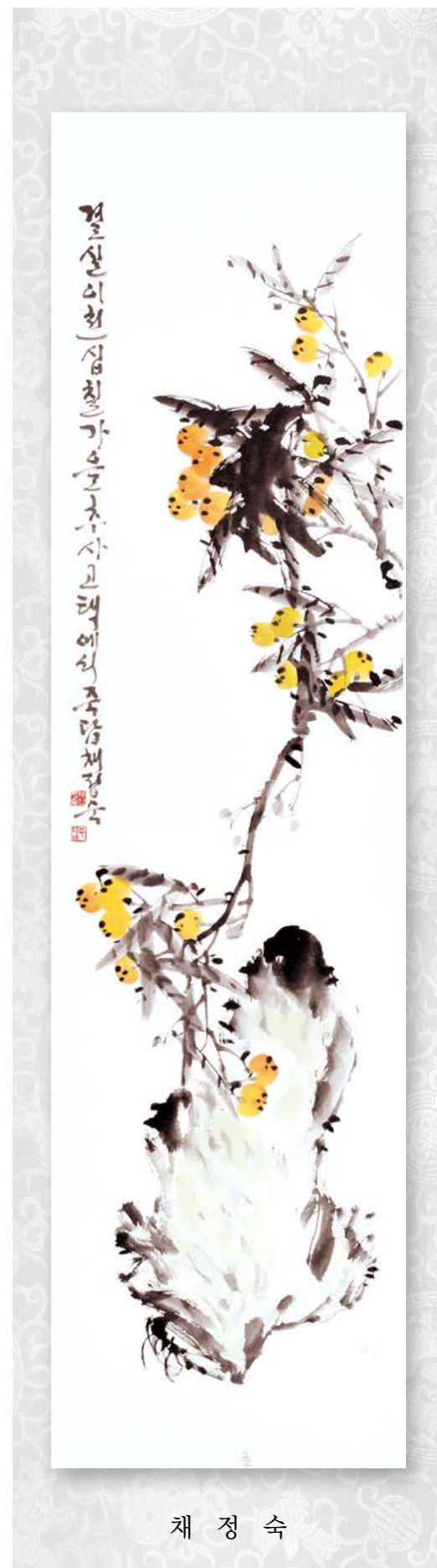




정 다 정



조 경 선



채 정 숙



추 은 희





빈상에 사랑보이지 않고 사랑스러워
아리만큼려울수록 양빛이길음스러
로들어와나시듯 느끼기에 비친다
추사김정희선생유묵모전국회대학교



윤재기

빈상에 사랑보이지 않고 사랑스러워
아리만큼려울수록 양빛이길음스러
로들어와나시듯 느끼기에 비친다
추사김정희선생유묵모전국회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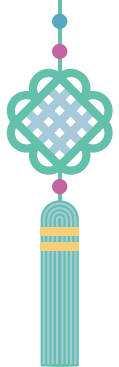
추사김정희선생유묵모전국회대학교



김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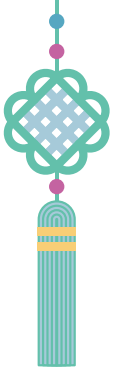
함은미





상구정운어느곳이종을가부왕이랴오
렌사찰이라네해가지며산봉우리들
들인양난풍막아글썩은어느곳지않네
황응룡필예상추사고택에서적다 남흥이누영

이수연



산수정온어느곳이종을가부왕이란오
랜사찰이라네해가지며산봉우리
이양난풍막아글썩은어둠지않네

정유년경사산정유년경사산정유년경사산
정유년경사산정유년경사산정유년경사산

이 명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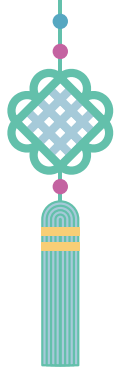
빈상에 사랑보이지 않고 사랑스럽기에
아리만큼 천을 뜯어 양빛이 기를 응축되어
모든 것을 어둠과 시련과 이끼와 비침과 나
침과 무로가 되어서 그 희미한 빛과
조용한 기운이

이 문 석

이천심초를 들죽 화되는 계절에 스물여덟번째 재수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회호대회에 이응후 선생의 시를 판본체로 적다 지정이 병임

이 병 섭

이천심칠년드죽화되는계절에스물여덟번째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전국
취호대회에 M이영규 선생의시를판본체로적다지정이병섭



산수정잉어그림이 좋을까봐 양이 많
오랜사찰이라네 해가지며 산봉우리만
들인양 단풍잎의 붉은색이 어둡지않네

정유가추사선생전국회화대회에서 참빛최성희

최 성 희

산수정잉어그림이 좋을까봐 양이 많
오랜사찰이라네 해가지며 산봉우리만
들인양 단풍잎의 붉은색이 어둡지않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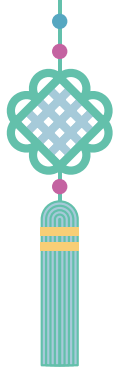
정유가을추사회화장에서 전해이혜원

이 혜 원

빈산외사만면이지않다
아리만들면양분선양빛이
로돌아와다시푸른이끼위
에비친다

정유가을추사김정희회화대회연정이윤숙

이 윤 숙





人生無別法著衣與喫飯
為治無異術使各得其願

丁酉年秋之節智山金起鳳



김기봉

看山河處好扶杖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錄秋史先生詩一首丁酉仲秋節東岩具本洪



구본홍

看山河處好扶杖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錄秋史先生詩一首丁酉秋日長軒姜允求



강재숙

看山河處好扶杖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仲秋青岷姜在淵



강윤구





尺生癡所獲香蘭心
啖飯象沿癡思飛傳
奇得其願

鍾敦敦集中一首
梅曜全真甫

김 정 보

香山何處好扶杖
曰落峯如染楓明洞不陰

錦阮堂先生詩丁酉年秋日遙平臺浮珍

김 순 기

香山何處好扶杖
曰落峯如染楓明洞不陰

錦阮堂先生詩丁酉年秋日遙平臺浮珍

김 상 년

香山何處好扶杖
曰落峯如染楓明洞不陰

歲次丁酉年秋月朔日錦阮堂先生詩浦軒全甫

김 남 일





看山河處如扶杖
日落峰如染楓明洞不陰

丁酉之秋於秋史自日場探毫大舍安山卜鎮昌

복진창

看山河處好扶杖
日落峰如染楓明洞不陰

丁酉仲秋曉石朴玉信

박오신

看山河處好扶杖
日落峰如染楓明洞不陰

秋史堂主人玉信丁酉晚秋素如朴洗模

박광모

看山河處好扶杖
日落峰如染楓明洞不陰

秋史堂主人玉信丁酉晚秋素如朴洗模

김종순





看山河處好扶杖
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錄阮堂先生詩 雲山李在宅



이 재 택

看山河處好扶杖
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雲井李淳生



이 순 규

看山河處好扶杖
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仲秋萬潭

尹華子



윤 영 자

看山河處好扶杖
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仲秋錄秋史先生詩 如蘭王明洪



왕 명 속





看山河處好扶杖古
日溪峰如染楓明洞不陰

銀秋史先生詩丁酉秋西河韓再植

한 재 식

看山河處好扶杖古
日溪峰如染楓明洞不陰

丁酉年寒月韓再植詩銀秋史先生詩丁酉秋西河韓再植

차 호 준

看山河處好扶杖古
日落峰如染楓明洞不陰

丁酉秋日曉達林德奎

임 덕 규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仲秋晚毫金會植

김한용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仲秋秋史先生白日楊雲松金忠均

김충균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年秋漢堂金吉順

김길순

空山不見人但聞人語響
返景入深林復照青苔上

丁酉仲秋青湖姜秉錫

강병호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峰如染楓明洞不陰

丁酉晚秋然齋方器珍

방 철 진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峰如染楓明洞不陰

丁酉菊秋節青波朴泳泰

박 영 태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峰如染楓明洞不陰

二〇一七年秋節華松文鐘雲

문 종 운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峰如染楓明洞不陰

丁酉菊秋之節貞岩金漢錦

김 회 식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孟秋之節 砥汕李準瑞

이 준 서

人生無別法 著衣與喫飯
爲治無異術 使各得其願

禮岩 元浣喜

원 완 희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菊秋 三山梁熙昌

양 희 창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仲秋佳節 錦谷申斗均

신 두 균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丁酉年菊秋佳節 吳石崔圭美

최규영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仲秋 青岩趙重煥

조중환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錄金正喜先生詩丁酉晚秋沈然齊照錄

정희숙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丁酉年仲秋 若農田炳紋

전병문





看山河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仲秋東村洪珠烈



홍 주 열



看山河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年孟秋節桂堂崔秀植



최 수 식

看山河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仲秋佳節友村崔炳寅



최 병 인



강 영 안



고 현 정



곽 재 희



권 영 만





김 경 숙



김 기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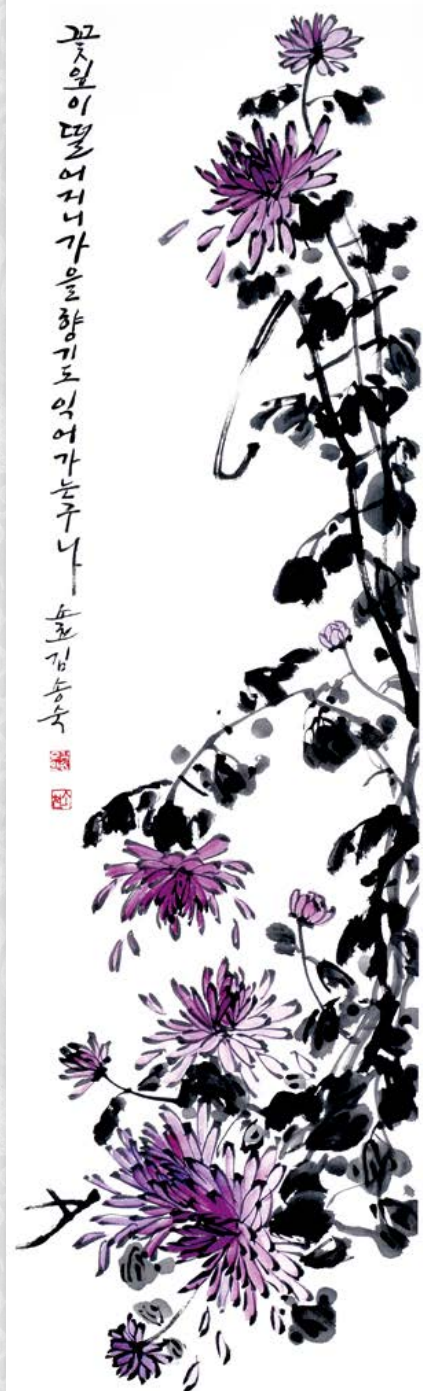


김 나 현



김 난 희





김 송 숙



김 순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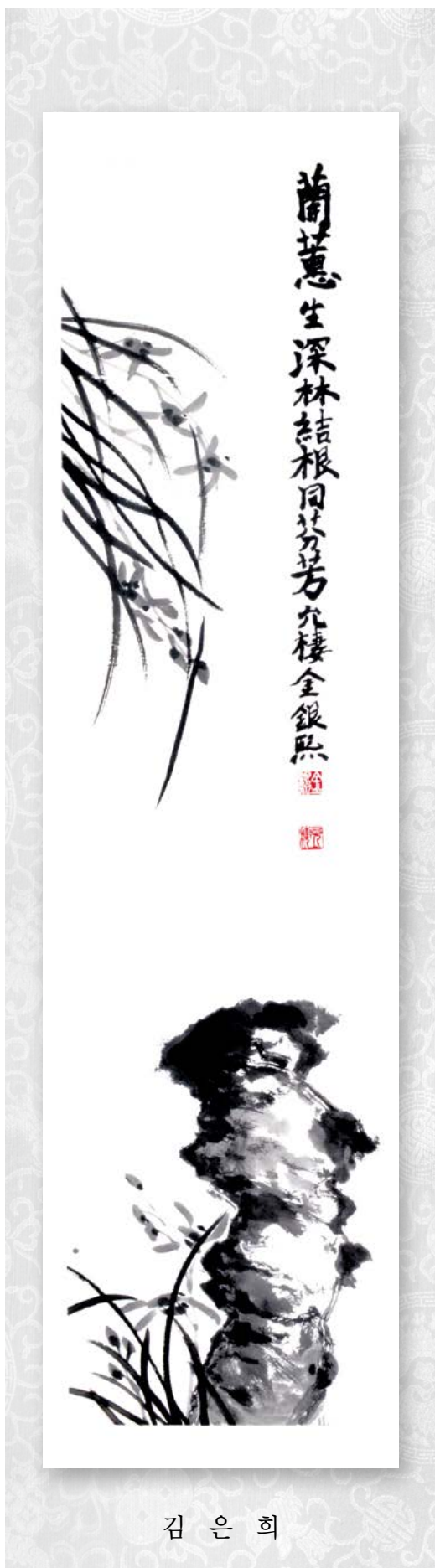


김 영 오



김 영 준





김 은 희



김 인 자



김 재 구



김 정 수





김 향 배



김 현 희



남 철 우



문 성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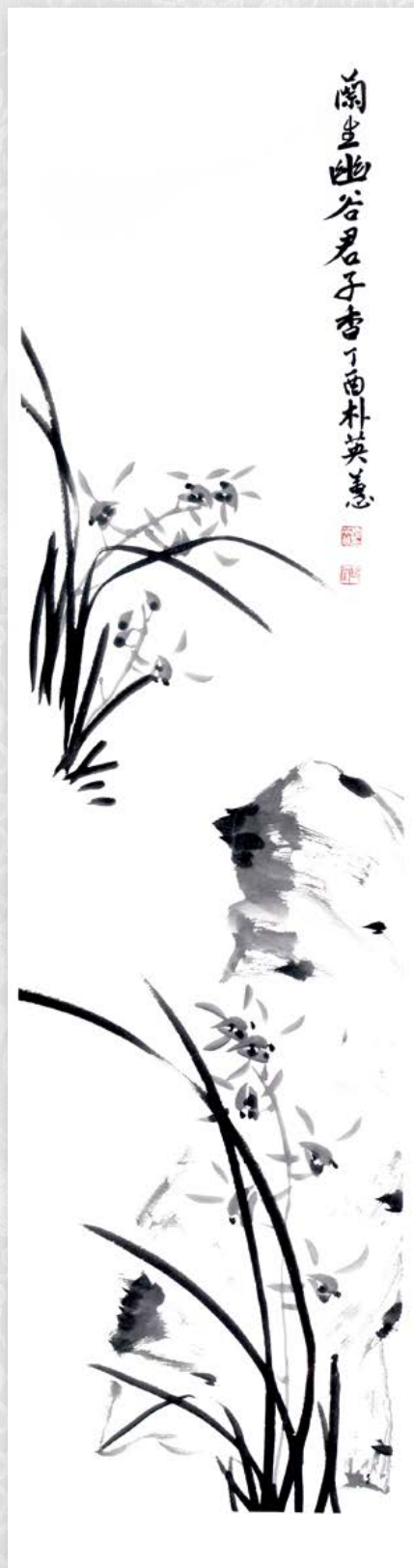
박 미 희



박 부 송



박 순 동



박 영 혜





박 은 순



배 숙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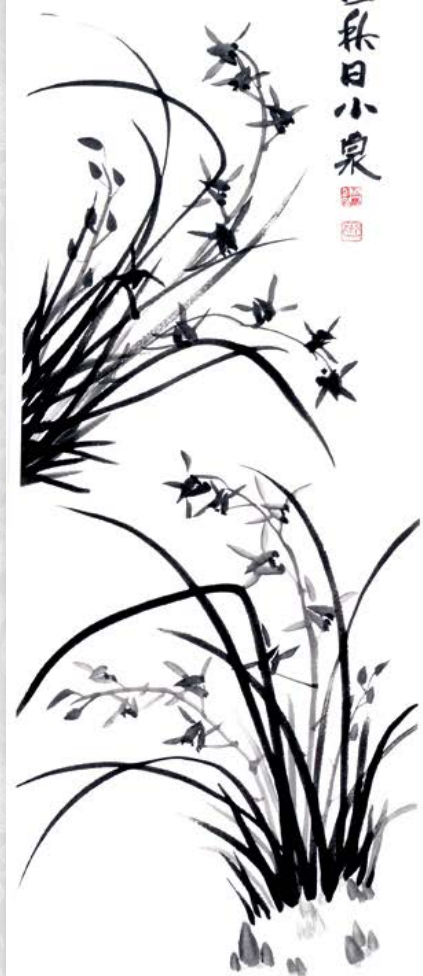


백 미 혜



백 정 희





有君子風丁酉秋日小泉

백 희 영



此花獨在空谷中
清香自與眾不同
정유가을유곡

서 동 철



아름답고
고귀한
연꽃
정순

서 정 순



樸花集億任渠先

勉堂 徐學珍

서 학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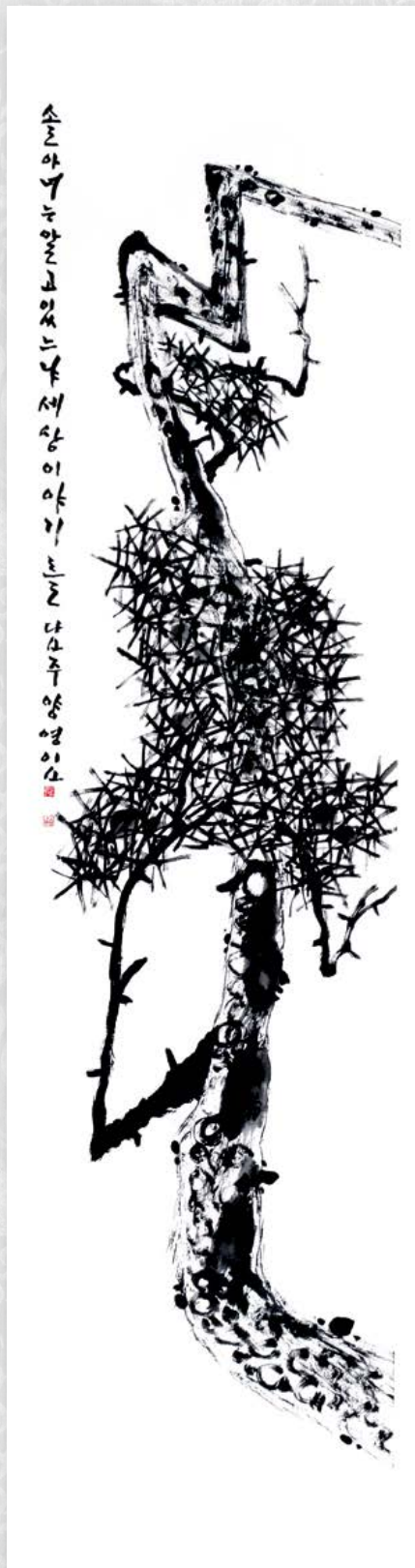




안 광 희



양 경 희



양 영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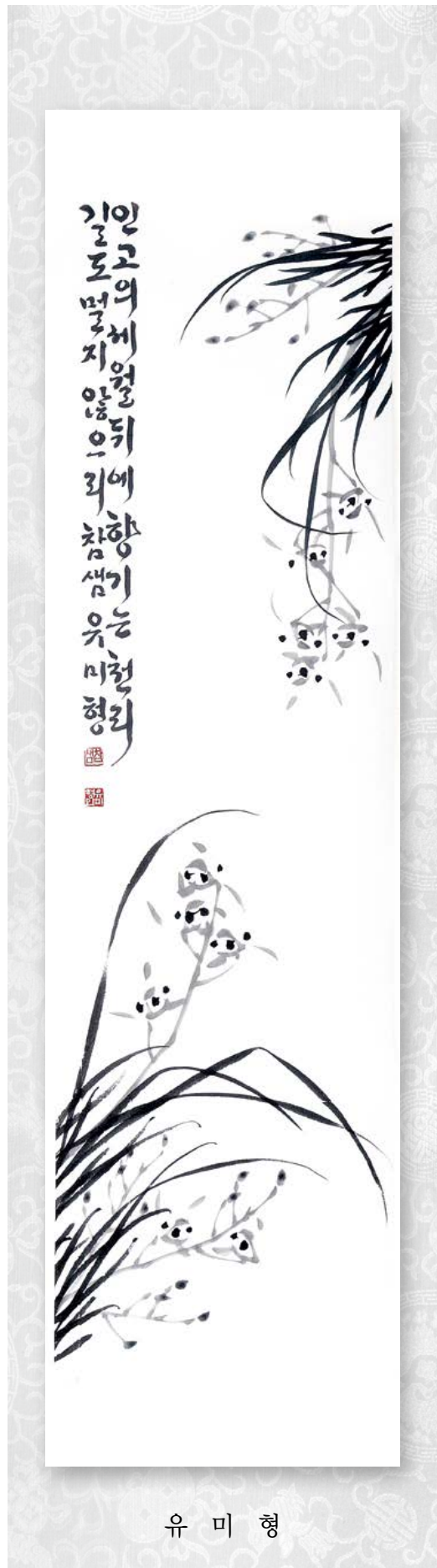


어 경 란





오 석 구



유 미 형



유 정 이



이 경 호





이 규 숙



이 미 란



이 복 형



이 순 희





이 영 순



이 원 숙



이 은 화



이 인 영





이 정 민



이 정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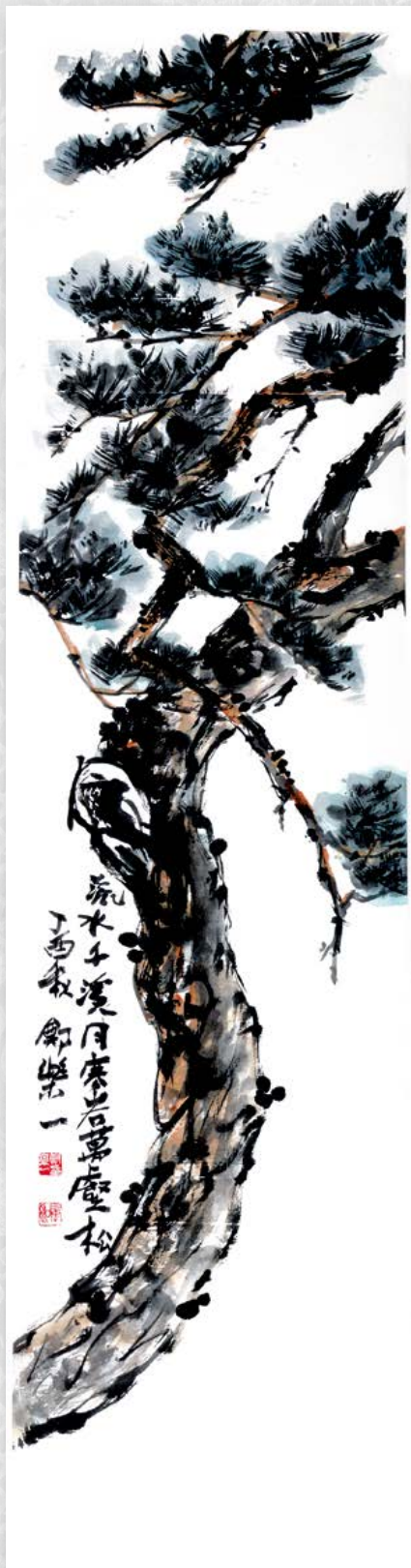


임 복 택



전 순 진





정 낙 일



정 수 복



정 영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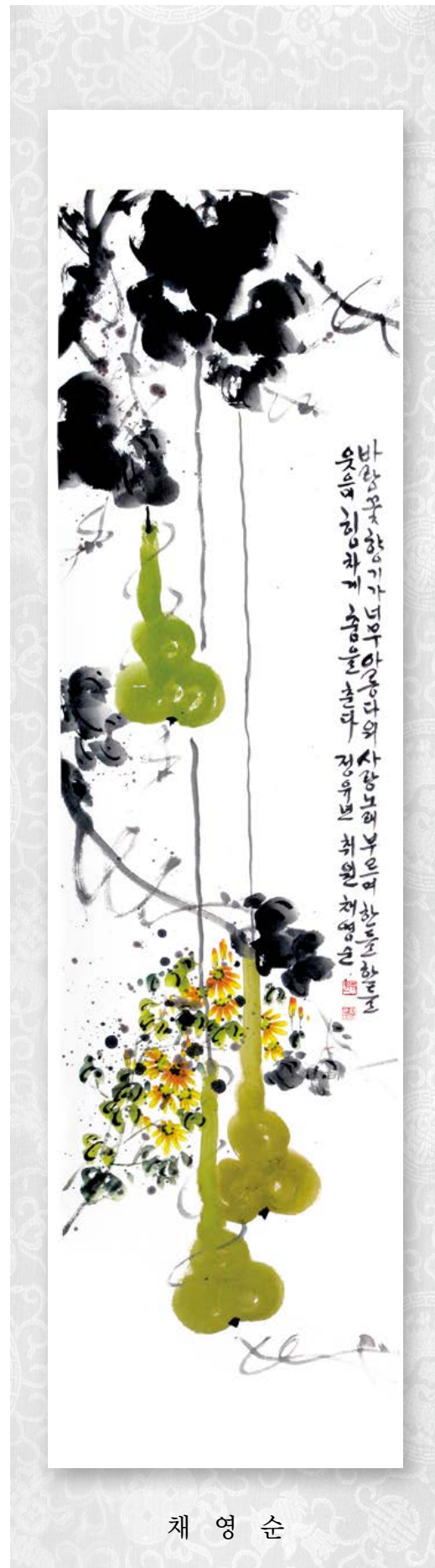


조 경 선





차 태 운



채 영 순



천 건 수



최 광 석





최 미 자



최 승 우



최 은 화



최 익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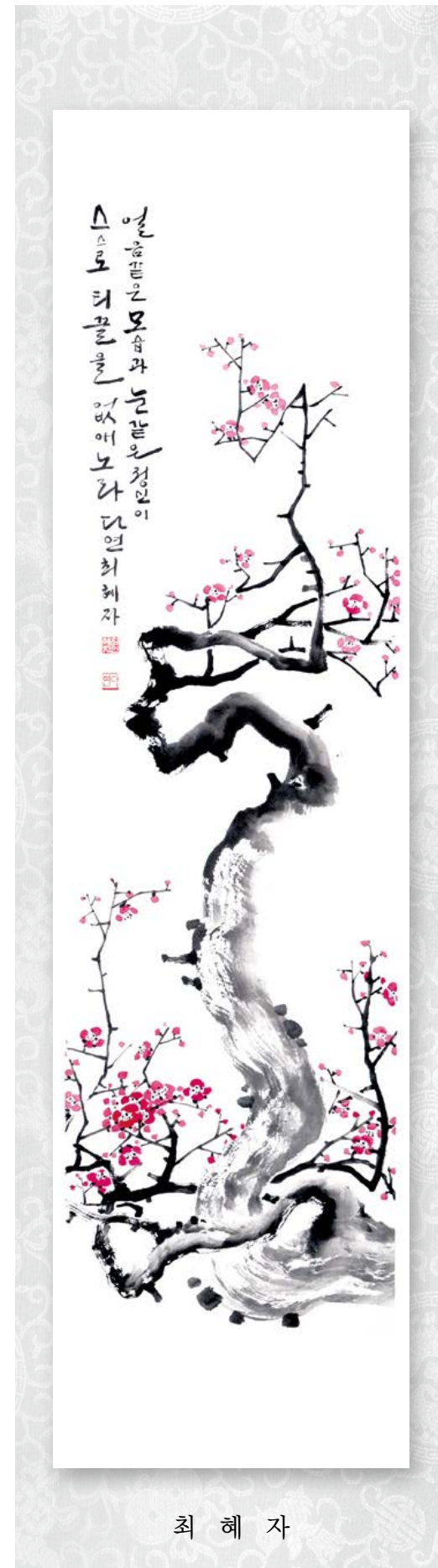
최 인 자



최 종 고



최 준 모



최 혜 자





최 희 욱



추 재 환



한 재 길



함 귀 문





신간에이구 시냇가에는파랑이 푸르니
청이 푸르니 푸르니 푸르니 푸르니 푸르니
맑은 물이 푸르니 푸르니 푸르니 푸르니 푸르니

김영옥

김영옥

대시부른이우에비친다
만물엔물결이 푸르니 푸르니 푸르니 푸르니 푸르니
대시부른이우에비친다

추사 김정희 유종모 회화장예회
화당 김기숙

김기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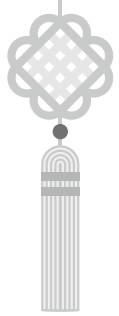


홍은순



홍순복





미친듯한 사랑이 어찌 그리 사랑이
로미로미로 사랑이 어찌 그리 사랑이
어와나 사랑이 어찌 그리 사랑이

정유년 가을
소매 박광모

박 광 모

산수경이 어찌 그리 사랑이
로미로미로 사랑이 어찌 그리 사랑이
어와나 사랑이 어찌 그리 사랑이

추사김정희선생유추모전국회대학교
정유년 가을
소매 박광모

문 경 희

비산에 사랑이 어찌 그리 사랑이
로미로미로 사랑이 어찌 그리 사랑이
어와나 사랑이 어찌 그리 사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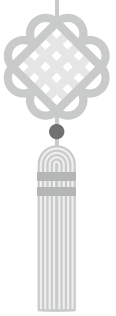
추사김정희선생유추모전국회대학교
정유년 가을
소매 박광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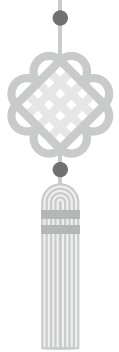
노 형 영

비산에 사랑이 어찌 그리 사랑이
로미로미로 사랑이 어찌 그리 사랑이
어와나 사랑이 어찌 그리 사랑이

정유년 추사김정희선생유추모전국회대학교
정유년 가을
소매 박광모

김 인 자





비상에 사랑의 지향의 사랑의
아름다운 연을 지향의 길은
로 하여 다스려 이의에 비친다

이 기 택



이 기 택

미친듯한 사랑의 지향의 길은
비밀의 사랑의 지향의 길은
바람이 드나들고 있다

윤 순 례



윤 순 례

비상에 사랑의 지향의 길은
아름다운 연을 지향의 길은
로 하여 다스려 이의에 비친다

배 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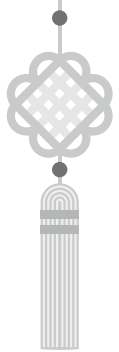
배 규 한

산수정유어느곳이 사랑의 지향의 길은
연사찰이라네 해가지며 사랑의 길은
이양나, 사랑의 길은

박 명 옥



박 명 옥





인생에 별다른 방편도 없는데 무슨 말도 생겼을
뿐 정치엔 별다른 기 능도 없는데 마다스원의 비
제하는 것이 옳음

이 용암산의 들을 들람기 이 성옥가려 작다

이 성 옥

피신도스름피어스름한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
의심도스름피어스름한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
오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
정유년 가을
문해이선자

이 선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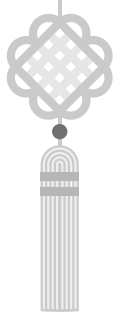
진사도스름피어스름한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
의심도스름피어스름한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
오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스름
추사회호재회
술빛이미자

이 미 자

빈산에 사람보이지 않고 사람소리 메아
리만 들려야 별다른 양빛이 깊어 사색이 퍼져
어와 다시 푸른이 위에 비친다

추사김정희선생유족모임 전국회도대회
양원이문자

이 문 자





인생은 별다른 방법 없네 웃임과 밥
먹는 것 이외엔 청치와 별다른 기쁨 없
네 처마나 그 원이 꼭 제 하는 것 이외엔

정유년 초사 김정희 선생 추모 회화대회 찬내이진숙

이진숙

산다. 영이. 그 것이 행을 따. 왕이. 립이.
랜사. 찰이라. 네 해가 지며 산. 행우. 리. 별
인양. 단. 품. 밝아. 들. 짝은. 이. 틈. 지. 않. 네

정유년 가을 추사 회화대회에서 덕원이종선

이종선

상구정은 어느 곳이 풍을 따 부왕이 립이
랜사. 찰이라. 네 해가 지며 산. 봉우. 리. 별
인양. 단. 품. 밝아. 들. 짝은. 이. 틈. 지. 않.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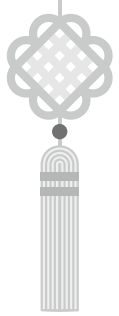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회화대회서 덕원이영신

이영신

산구정은 어느 곳이 풍을 따 부왕이 립이
랜사. 찰이라. 네 해가 지며 산. 봉우. 리. 별
인양. 단. 품. 밝아. 들. 짝은. 이. 틈. 지. 않. 네

추사선생추모회화대회서전다연재이여원

이여원





빈상에 사랑보이지 않고 사랑소리 메
아리만들려울뿐 초양빛이 길은 길로
로들 어와나 시부네이 끼위에 비친다

추사 김정희 회화회 서사나들선창회 연

정 휘 영

빈산에 사람보이지 않고 사람소리 메
아리만들려울뿐 초양빛이 길은 길로
로들 어와나 시부네이 끼위에 비친다

정유년 추사선생 추모 전국회포대회에서 함정정순환

정 순 환

상구정은 어두이 종을 깨우왕이란
오랜사찰이라네 해가지며 상봉우리
를들인양난영광아를 짝응어답지않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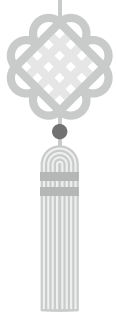
추사 김정희 회화회 서사나들선창회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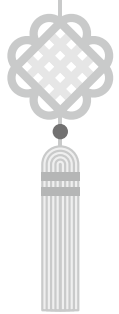
정 선 영

빈상에 사랑보이지 않고 사랑소리 메
아리만들려울뿐 초양빛이 길은 길로
로들 어와나 시부네이 끼위에 비친다

정유년 추사선생 추모 전국회포대회에서 함정정명남

임 명 남





상구정양호시대의정음의무왕의관
오랜사찰이라네해가지며상봉우리
다들불이양다불광아를적양호도림지않네
정양호가을추사부회피회부왕사동산회원

조희원

상구정양호시대의정음의무왕의관
오랜사찰이라네해가지며상봉우리
다들불이양다불광아를적양호도림지않네
정양호가을추사부회피회부왕사동산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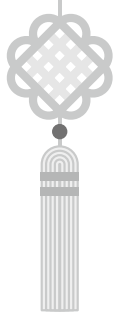
조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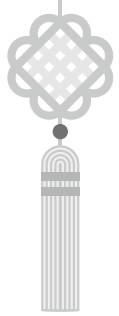
빈상에사랑보이지않는사랑스리메아
리만늘려을보호은보의고아를이려네
어와나시부부의의의비친구
추사김정희선생유족모친국회대학교

조향숙

친구정양호시대의정음의무왕의관
오랜사찰이라네해가지며상봉우리
다들불이양다불광아를적양호도림지않네
정양호가을추사부회피회부왕사동산회원

조경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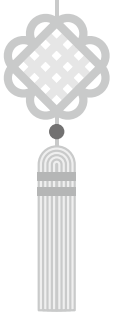


2017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전국회호대회

[illegible]

임꺽시를쓰다
한서

한 재 식



2017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전국회화대회

이성원평남평. 고종국악가대평
만고노평정. 차평남평스세영
내자모수영. 투게하노평만
하(來)
최정수

한글
최정숙

최정숙

산구경은 어긋아 돌을 깨뜨리고
랜사찰이 띠네 해가지며 산봉우리
인양난풍이 밝아 돌쪼개지 않네

제이십팔회축사김경희호태회에서
꽃길최은실

최은실

신구경은 어느 곳이 좋은가를 부왕이 랑오
 려사찰이라네 해가지며 산봉우리 푸르네
 인양난풍 밝아 글썽은어듭지 않네
 정유년 가을 추사 후회호대회에서 붓글씨 최유선



최 옥 선



看山何處好
扶杖明洞不
陰林
曰落峯如染
楓

丁酉秋 新日錄 鄭景珍 謹正

권 정 구

看山何處好
扶杖明洞不
陰林
日落峯如染
楓

丁酉秋 新日錄 鄭景珍 謹正

곽 경 진

빈산에 사람보이지 않고 사람소리 메아리만
들려올 뿐 선양빛이 길은 누이로 들어와 다시
푸른이끼 위에 비친다

왕유구의 글 지선홍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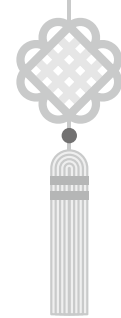
홍 경 자

빈산에 사람보이지 않고 사람소리 메아
리만들려올 뿐 선양빛이 길은 누이로 들
어와 다시 푸른이끼 위에 비친다

추사김정희선생영주모회화장에 써는 정형성하

형 성 하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金世榮

김 세 영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年秋錄秋史先生詩一首青谷金成煥

김 성 환

空山不見人但聞人語響
返景入深林復照青苔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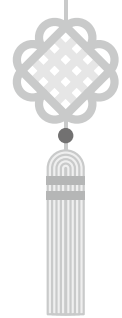
丁酉中秋之日宰衆金仙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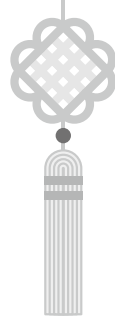
김 선 영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仲秋遊河金美素

김 미 소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仲秋節秋史先生詩素達金仁子



김 인 자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之秋錄秋史先生詩初然金系達



김 유 정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仲秋雅松金榮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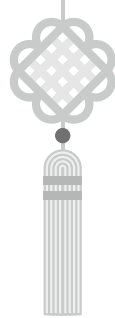
김 영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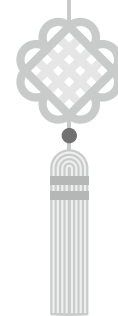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歲次丁酉秋月錄秋史先生詩一首仁達金順德



김 순 덕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史揮毫大會楊川柳興善

류 흥 선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日秋史先生詩 歸正 金煌燮

김 황 섭

人生無別法
著衣與喫飯
為治無異術
使各得其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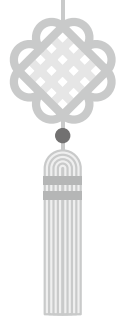
丁酉晚秋涿岩金漢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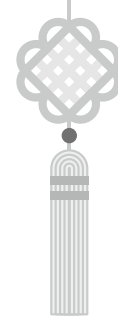
김 한 식

朝山阿鼻地
扶杖唯古
禪林日落
峰如染
楓明洞不陰

石潭金正煥

김 정 환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年仲秋之節 朴東求 頓道

박 순 도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仲秋節 松峰朴東求

박 동 구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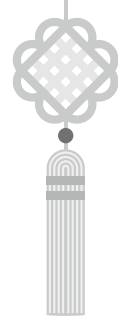
丁酉仲秋 雲亭文致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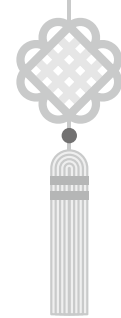
문 치 호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秋史先生詩 丁酉小春 一緯文鍾鳴

문 종 명





看山何處好扶杖
旺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之秋錄秋史先生詩深泉卜達洙

복 달 수

看山何處好扶杖
旺古禪林
看山何處好扶杖
旺古禪林

悟明洞不陰 錄秋史先生詩慧堂張德美

배 덕 미

看山何處好扶杖
旺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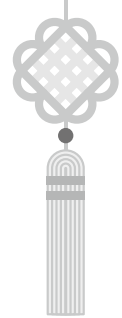
丁酉年 寒露節錄秋史先生詩野軒朴俊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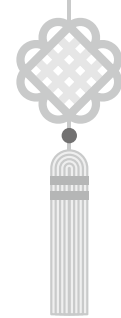
박 준 성

看山何處好扶杖
旺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錄秋史先生詩野楚朴順相

박 순 상





看山河處好 杖屨古禪林
落峯如染楓 明洞不陰

丁酉秋金忠憲公詩 琴軒宋賢翠

송 이 슬

看山河處好 杖屨古禪林
落峯如染楓 明洞不陰

蘇軾先生詩 金忠憲公詩 如曲辰宋賢翠

송 유 근

看山河處好 杖屨古禪林
落峯如染楓 明洞不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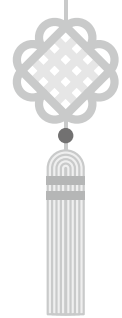
丁酉秋金忠憲公詩 琴軒宋賢翠

송 경 녀

看山河處好 杖屨古禪林
落峯如染楓 明洞不陰

錄秋史先生詩 丁酉年華谷徐得九

서 득 구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錄秋史先生詩遊玄延寄和

연기화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文南梁在郎

양재량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日錄秋史先生詩月以安周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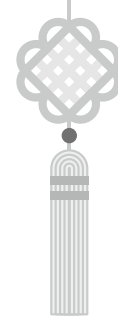
안주선

空山不見人 但聞人語聲
返景入深林 復照青苔上

丁酉秋鹿柴先生詩一首青雨申鉉祥

신현상





看山何處好
扶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仲秋之節 睦厚尹完男



윤 완 남

看山何處好
扶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晚秋之節 錄秋史先生詩 碧松元裕漁



원 유 덕

看山何處好
扶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歲次丁酉秋月 錄秋史先生詩 紫影吳真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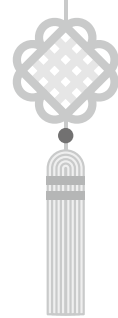
오 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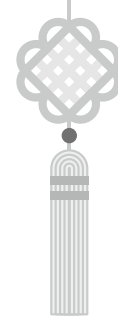
看山何處好
扶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中秋節 清香廉貞禮



염 정 례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日錄秋史先生詩丹石李康千

이 강 천

看山何處好 杖屨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錄秋史先生詩梅谷李康祐

이 강 우

看山何處好 杖屨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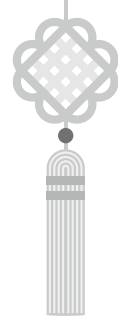
楷烈尹春松

윤 춘 근

看山何處好 杖屨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錄秋史先生詩
靜岩尹仁子

윤 인 우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歲次丁酉秋月鄒秋史先生詩茶庭李收彬

이 수 빈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寒露節月田李普姬

이 보 희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錄臨堂先生詩雅軒李美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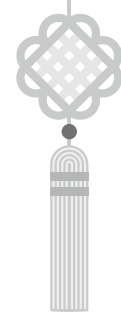
이 미 숙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秋史先生詩一首丁酉秋石川李棟熙

이 동 희





空山不見人但聞人語響
返景入深林復照青苔上

丁酉秋穠山李賢護

이 현 호

看山何處好扶杖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秋日秋史先生詩石恩李鍾輝

이 종 휘

看山何處好扶杖
日落峰如染楓明洞不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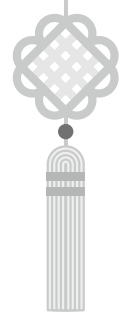
丁酉之秋錄院堂先生詩以虛李正浩

이 정 호

看山河度好扶杖
日落峰如染楓明洞不陰

丁酉秋日秋史先生詩石恩李鍾輝

이 재 혁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秋節報秋史先生詩盧濟張永勳



장영훈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秋節秋史先生詩一首松峴林扶澤



임부택

人生無所法著衣與喫飲
為治其病使名得其願

丁酉秋節秋史先生詩一首松峴林扶澤



인연환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秋節秋史先生詩一首松峴林扶澤



이혜순





看山何處好扶旺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於頌 於頌子 阮堂 秋史先生詩

丁酉 鄭永冕

정 구 면

看山何處好扶旺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仲秋心谷鄭甲順

정 갑 순

看山何處好扶旺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秋金正喜先生詩筆峯全權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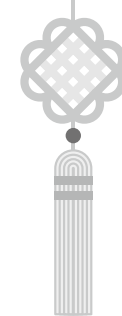
전 권 섭

看山何處好扶旺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秋節 於頌先生 於頌子 張漢燮

장 한 섭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於秋史揮毫大會場松苑曹得任

조득임

空山不見人
但聞人語聲
澗芳林復
照青苔上

丁酉年寒露節錄鹿柴
芝岡鄭瑞賢

정서윤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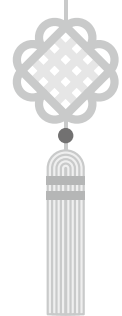
錄秋史先生詩丁酉仲秋耳鄭命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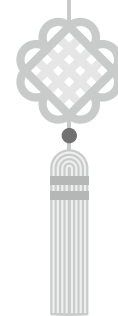
정명세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月玉水鄭今洲

정금숙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年仲秋於禮山菊園朱美羅

주 미 라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秋日時汪左惠

좌 혜 정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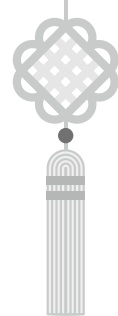
丁酉秋日錄阮堂先生詩隅谷趙洪範

조 홍 범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錄秋史金正喜先生詩曉庭趙鮮鵬

조 선 명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仲秋 崔永南

최영남

空山不見人
但聞人語響
返景入深林
復照青苔上

錄王維先生詩 丁酉秋 青里車泰云

차태운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 玄林李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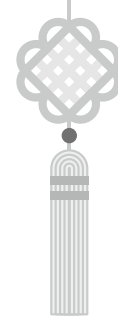
차경숙

看山何處好
扶杖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錄秋史先生詩 扶杖寺 丁酉秋 楊齊周誌浩

주철호





空山不見人
但聞
語聲
巖泉
上
人
深
林
復
照
青
苔

丁酉之秋節
景舟韓吉雄

한길웅

看山何處好
扶杖
古
禪
林
日落
峰如
染
楓
明
洞
不
陰

丁酉仲秋錄秋史先生詩仁山崔昌吉

최창길

看山何處好
扶杖
古
禪
林
日落
峰如
染
楓
明
洞
不
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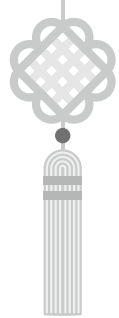
丁酉仲秋錄阮堂先生詩杖杖寺曉翁室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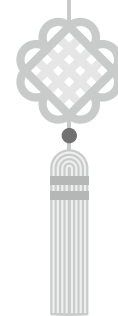
최진규

看山何處好
扶杖
古
禪
林
日落
峰如
染
楓
明
洞
不
陰

丁酉年秋日法然崔定燬

최정환





空山不見人但聞人語響
返景入深林復照青苔上

秋史先生遺墨丁酉承亮提法淳九



홍순구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秋史先生遺墨丁酉承亮提法淳九



허정희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年於秋史先生遺墓揮毫大會帽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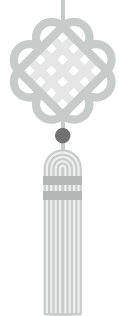
한용운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詩云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之秋錄秋史先生詩如以韓相亮



한상완





看山何處好
技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仲秋甫泉金相坤



김 상 곤

人生無別法
着衣與喫飯
爲治無異術
使各得其願

丁酉年秋節錄殷敦集靜譚具然春



구 연 춘

空山不見人
但聞人語響
返景入深林
復照青苔上

丁酉仲秋之節松山郭潤成



곽 윤 성

看山何處好
技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仲秋賢堂高贊禧



고 찬 희





空山不見人但聞人語響
返景入深林復照青苔上

丁酉秋深隱金貞美

김 정 미

空山不見人但聞人語響
返景入深林復照青苔上

丁酉仲秋節望山金頤經

김 오 경

人生無別法著衣與喫飯
為治無異術使各得其願

丁酉年仲秋之節丹村金泳錫

김 영 호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仲秋佳節東華金永憲

김 영 현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菊秋佳節

海峽文同國

문 동 국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菊秋之節 泥泉柳萬桓

류 만 환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菊秋之節

龍珠金顯真

김 현 진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菊秋之節 青雲金銓秀

김 종 수





看山何處好扶杖
旺古禪林
日落峰如染楓
明洞不陰

丁酉仲秋 志海 宋承 熟

송 승 훈

看山何處好扶杖
旺古禪林
日落峰如染楓
明洞不陰

丁酉仲秋 如意外夏琳

박 하 숙

看山何處好扶杖
旺古禪林
日落峰如染楓
明洞不陰

丁酉歲終之節 錦明 科天永

박 천 영

空山不見人但聞人語響
返景入深林復照青苔上

丁酉年仲秋 節杏村朴鍾厚

박 중 후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逢如染楓明洞不陰

丁酉晚秋白山李璟洙

이 경 수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峰如染楓明洞不陰

丁酉之秋泰山魏順伊

위 순 이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蒹秋節 金正喜扶睡寺

安基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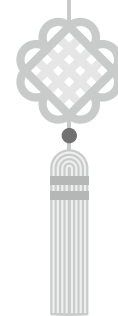
안 기 영

看山何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蒹秋節 金正喜扶睡寺 寶樹宋寅彬

송 인 분





看山何處好扶杖
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之秋施溫李在衡



이재형

看山何處好扶杖
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菊秋之節愚軒李雄培



이웅배

看山何處好扶杖
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之秋

倫吾

李淳夏



이순하

看山何處好扶杖
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初秋

少山李圭培

圭培



이규배





香山何處好 楓明洞不陰
扶旺古禪林 日落峯如染

丁酉菊秋湖苑趙庚順



조 경 순

香山何處好 扶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仲秋佳節雲靜張千秀



장 천 수

香山何處好 扶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菊秋節秋史先生追慕揮毫大會新嘉李台錦



이 태 호

香山何處好 扶旺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秋節青悟李俊鏞



이 준 용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丁酉之秋如庵崔載豐

최재풍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峰如染
楓明洞不陰

丁酉 晚秋 淨農 左君旭

좌군욱

看山何處好扶杖
古禪林
日落峯如染
楓明洞不陰

丁酉 葉秋節 綠水趙春敏

조춘민

人生無別法
著衣與喫飯
為治無異術
使各得其所願

丁酉之月南秋節

秋史先生白場

翰林趙局永

조국영





看山河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菊秋之節 青谷 韓泰燮

한 태 섭

看山河處好扶杖古禪林
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丁酉菊秋之節 裕碩 黃圭鴻

황 규 홍

명 제(命題) 일반부

秋雨濛濛鶴氣橫
松針石脈滿山明
試從一笠亭中看
環珮泠泠樹頂生

부슬부슬 가을비에 학의 기운 비껴날고
솔잎과 돌 더미가 산에 가득차 선명하다
일립정 가운데서 그저 한번 바라보노니
환패소리 선들선들 나무 끝에 생동하네

〈추사 시〉

蟹屋連渙灣 蛩雨襍雁煙
秋柳三四行 顛悴蒙行塵

바닷게는 여기저기 바다에 흩어져 있고
메뚜기는 비 내리듯 기러기 날아가는 안개속에 섞여있네
가을버들 서너 줄 늘어져
초췌하게 길 먼지를 덮어쓰고 있네

〈추사 시〉

剛被太陽收拾去
卻教明月送將來

강렬하게 비치던 태양은 모아서 거두어 가고
밝은 달은 장차 떠오르려 한다

〈추사병풍 중〉

梅高猶未離庭砌
清水眞看解脫仙

매화가 고상하나 뜰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맑은 물가에서 진정 해탈 신선을 보는구나

〈추사 시〉

손글씨

대 상 이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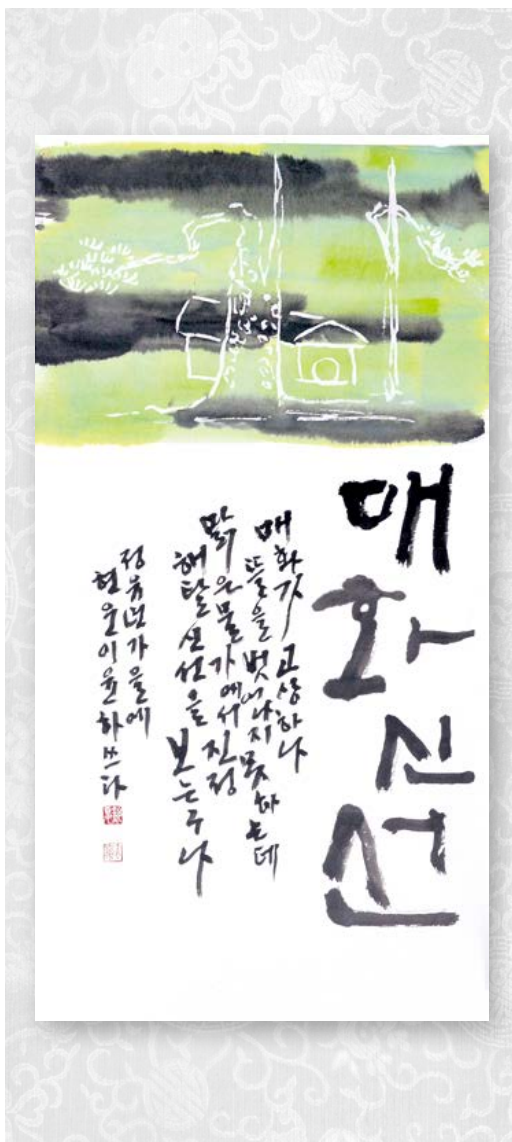
금 상 박순동
이미자

은 상 김효숙
윤경희
이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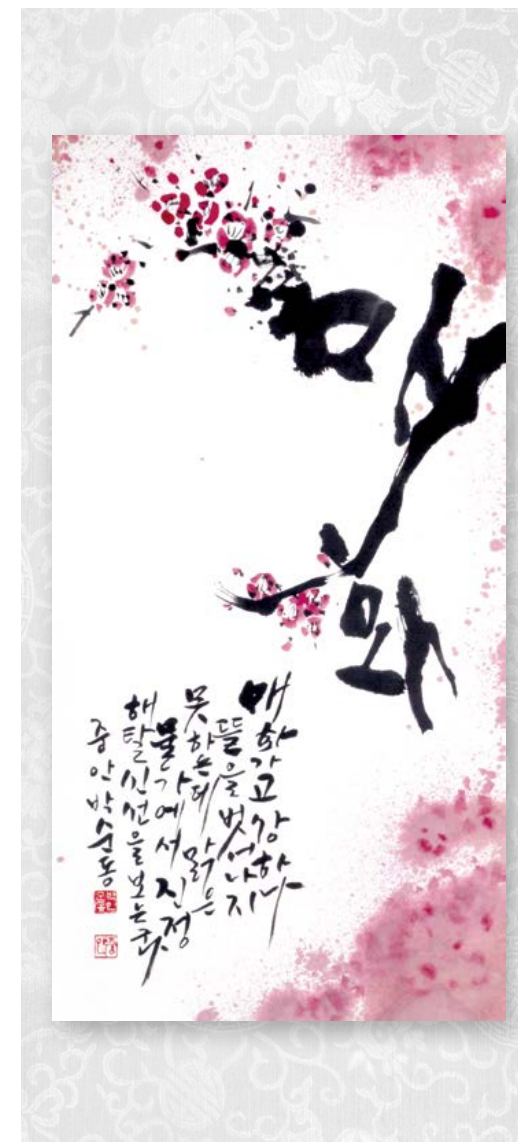
동 상 곽민선
김옥순
박미란
박소희
류미희

특 선 이순희
이은영
윤은경
이영주

입 선 김재영
백정경
백현지
심윤희
윤지선
이규인
이순주
이인영
이정호
전인숙
정선영
좌혜정
한재길



이 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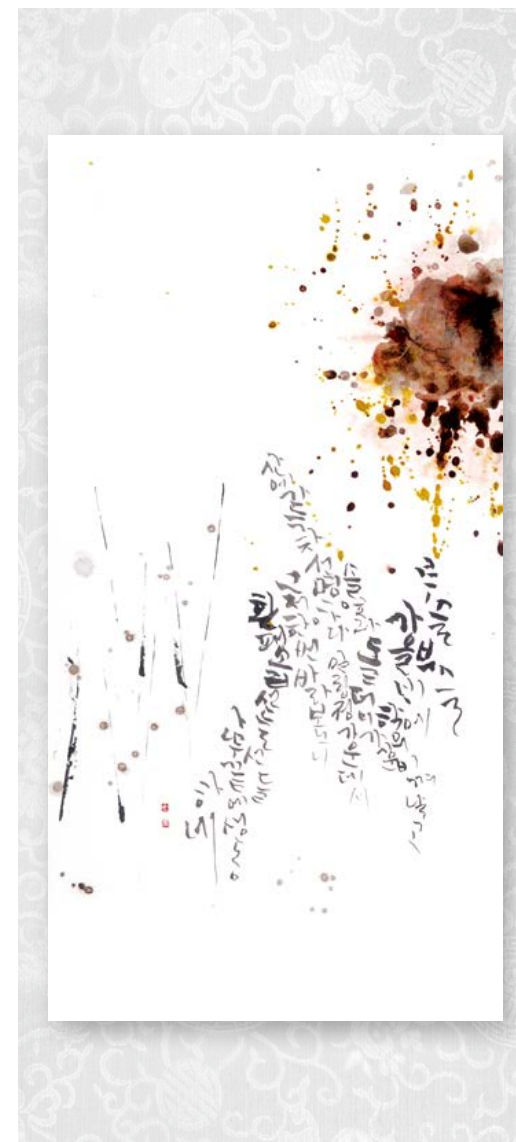
박 순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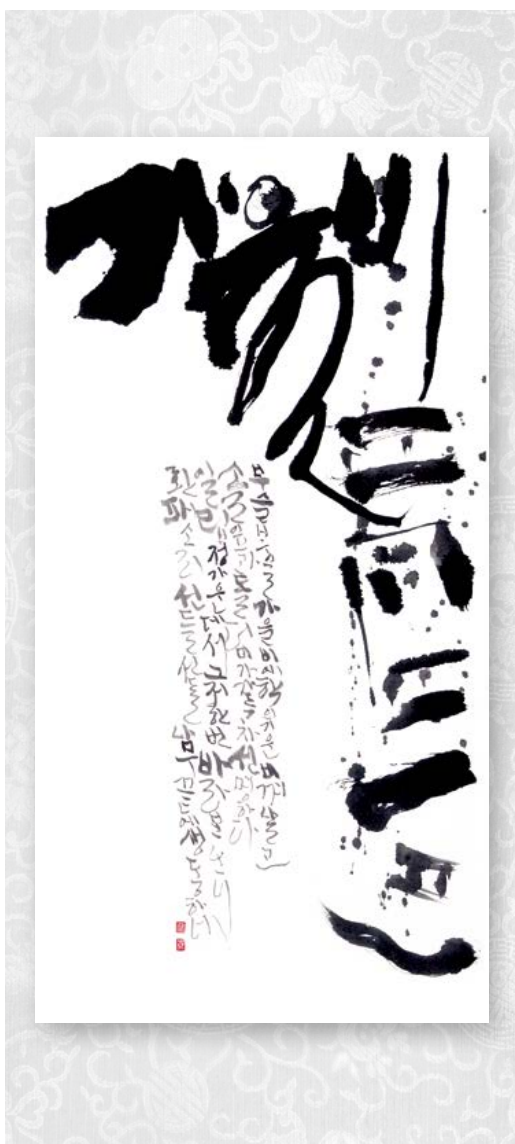
이 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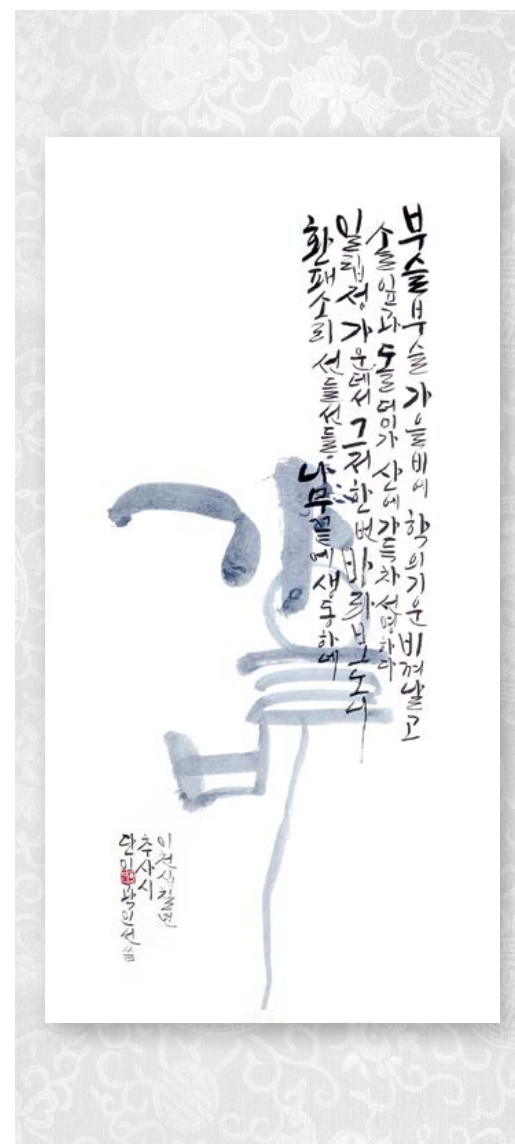
김 효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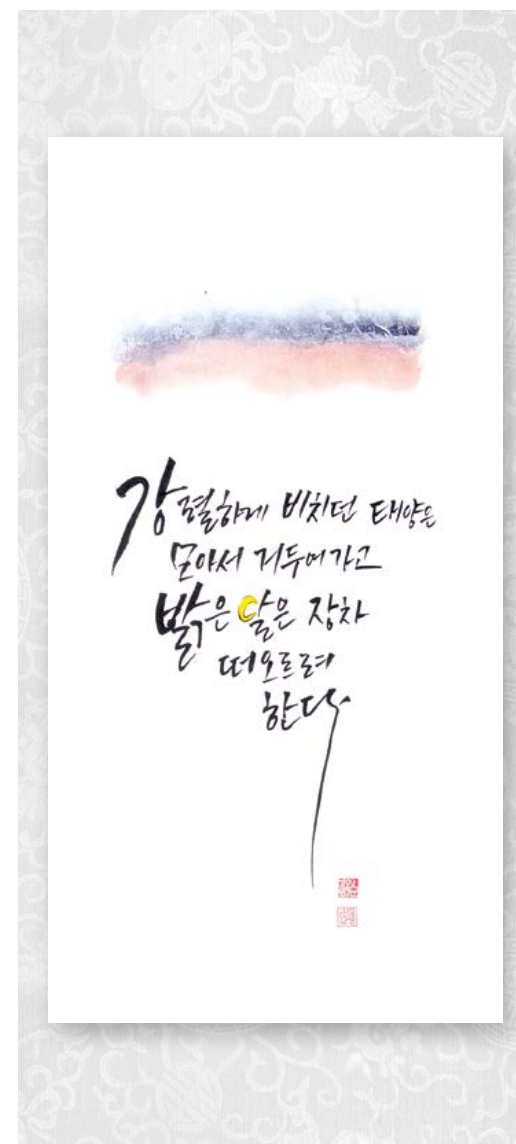
윤 경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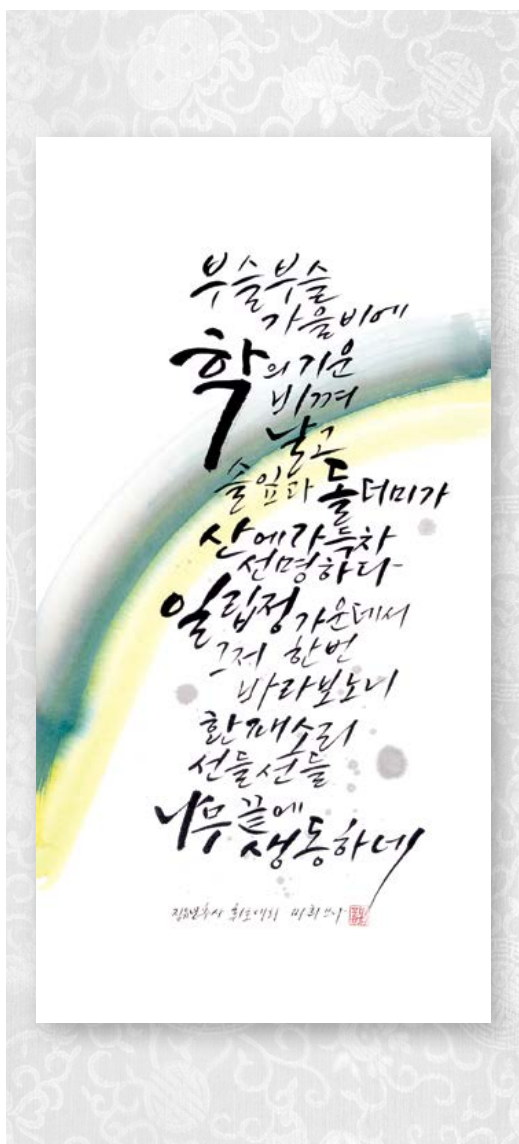
이 우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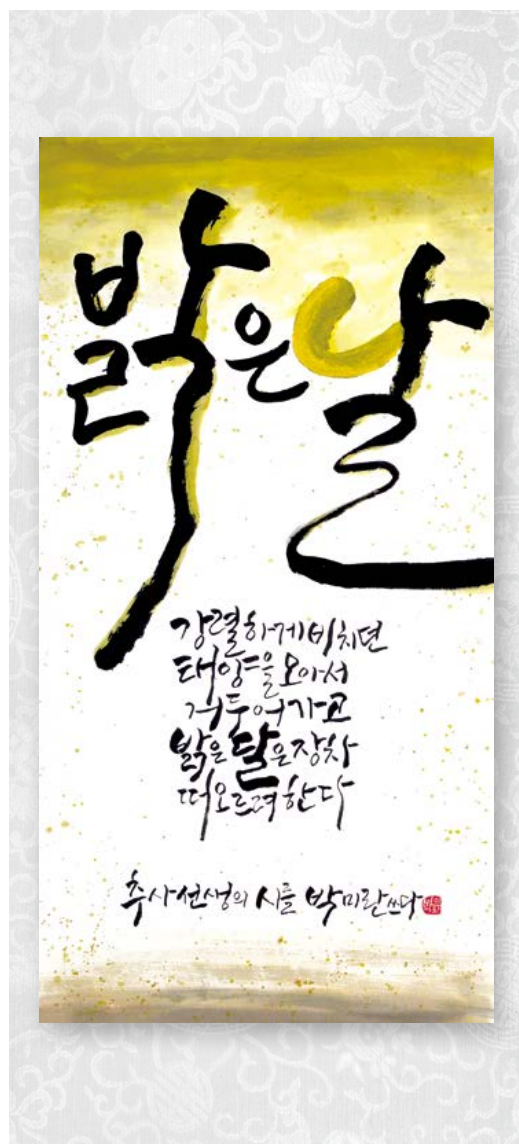
곽 민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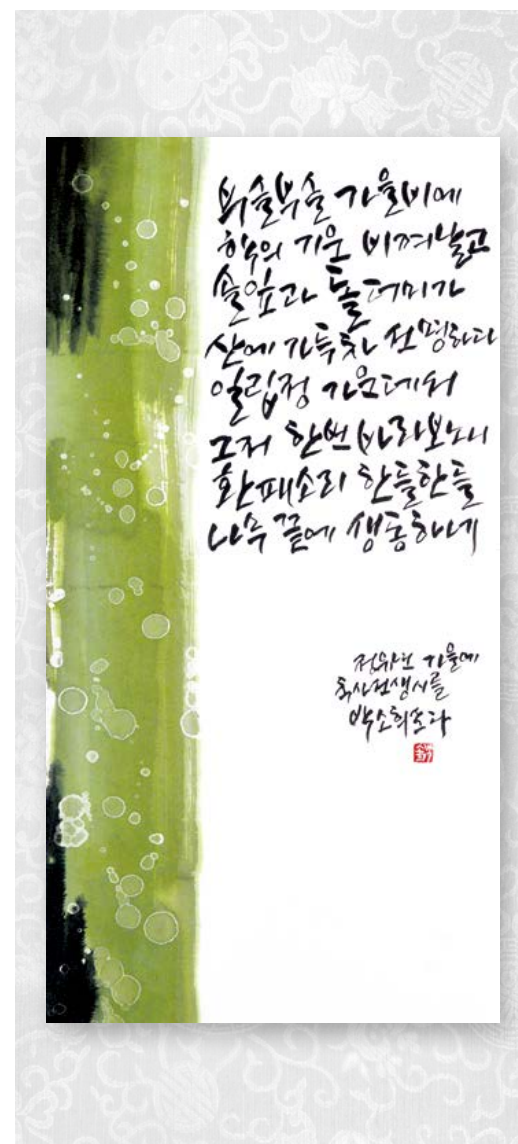
김 옥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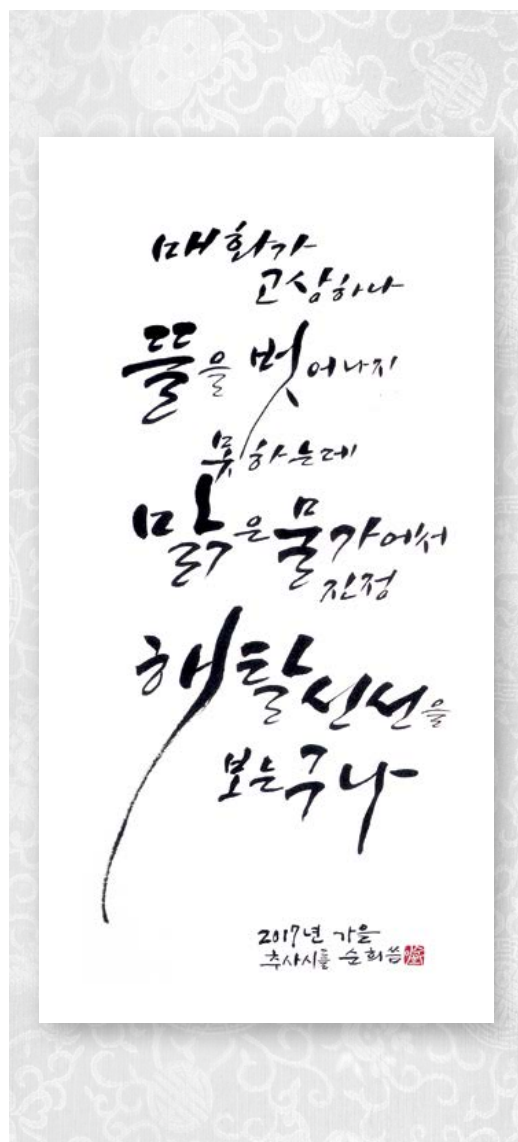
류 미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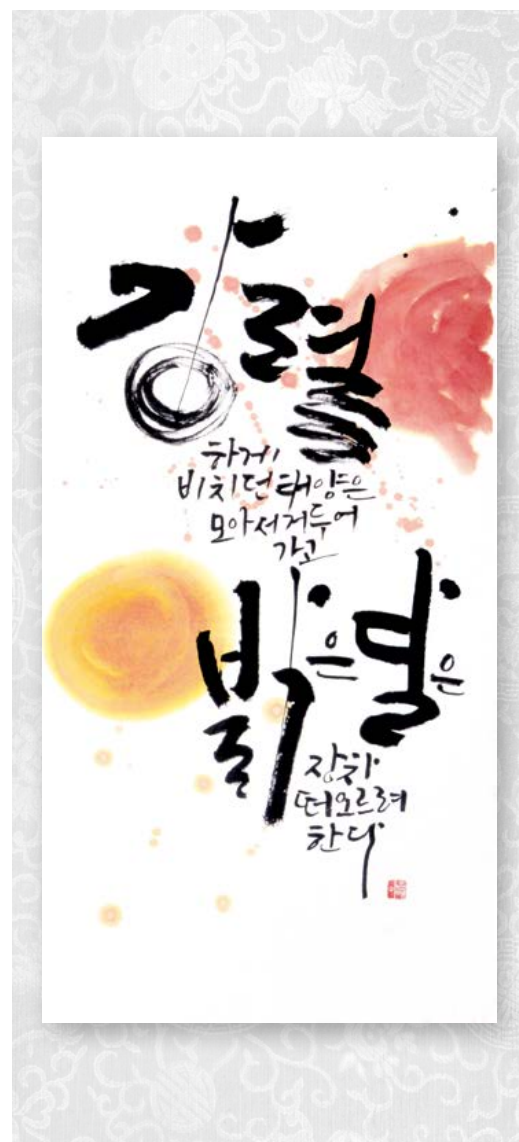
박 미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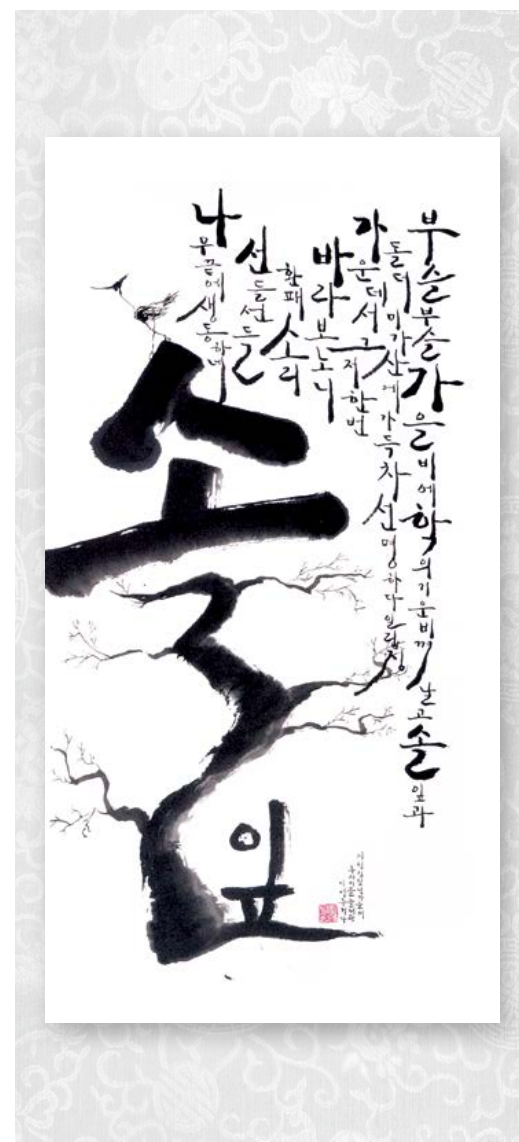
박 소 희



이 순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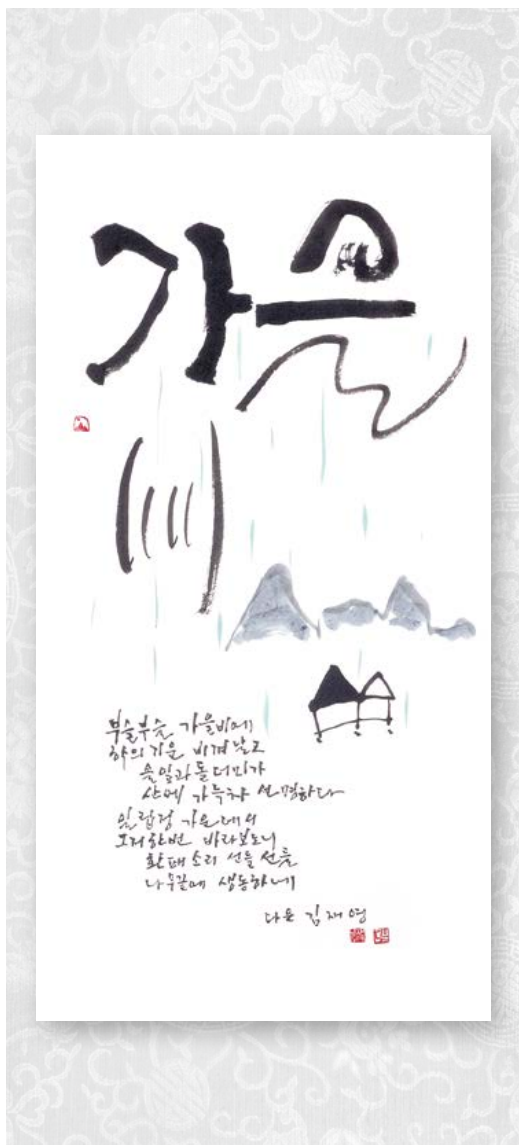
이 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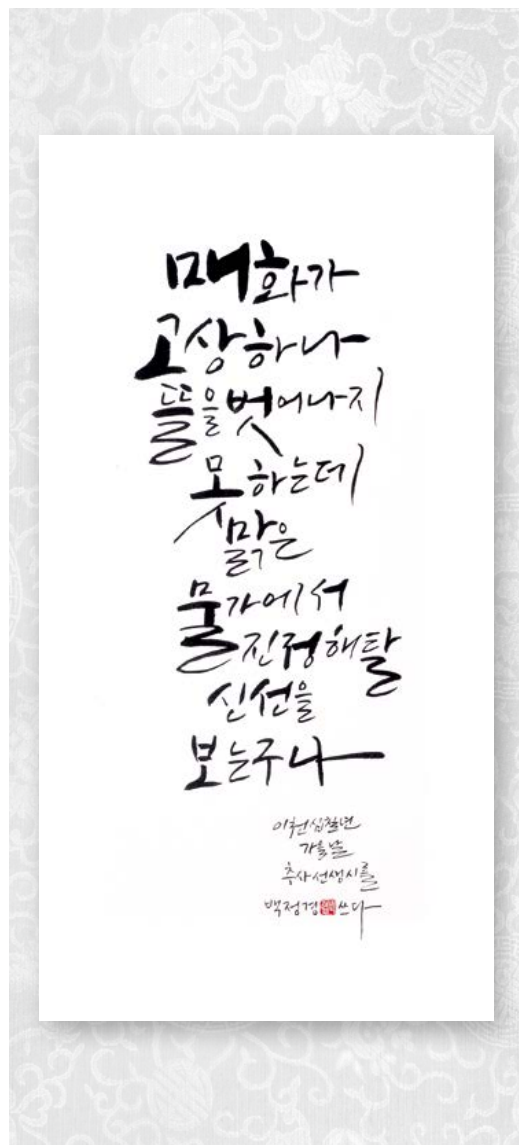
이 영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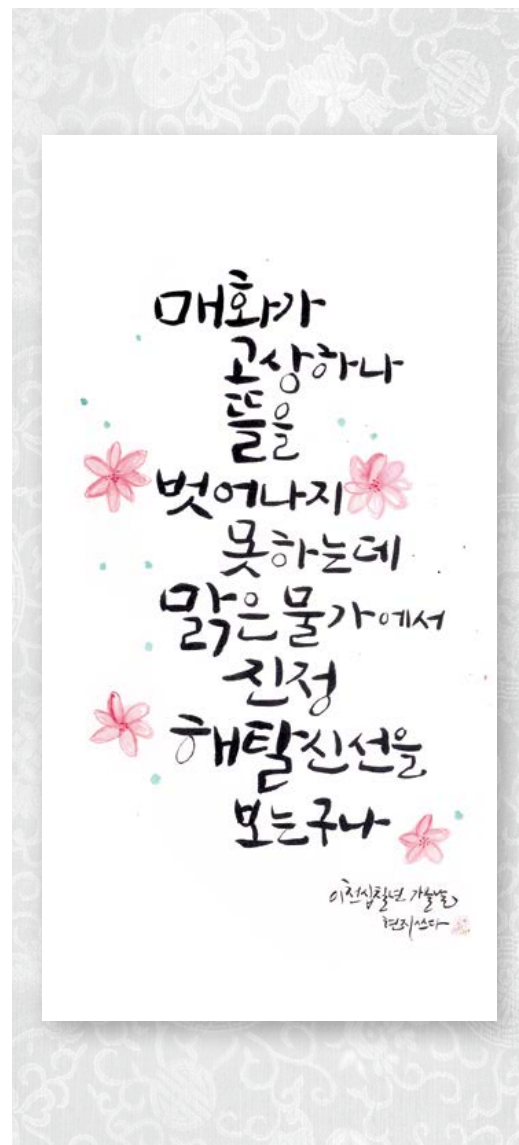
윤 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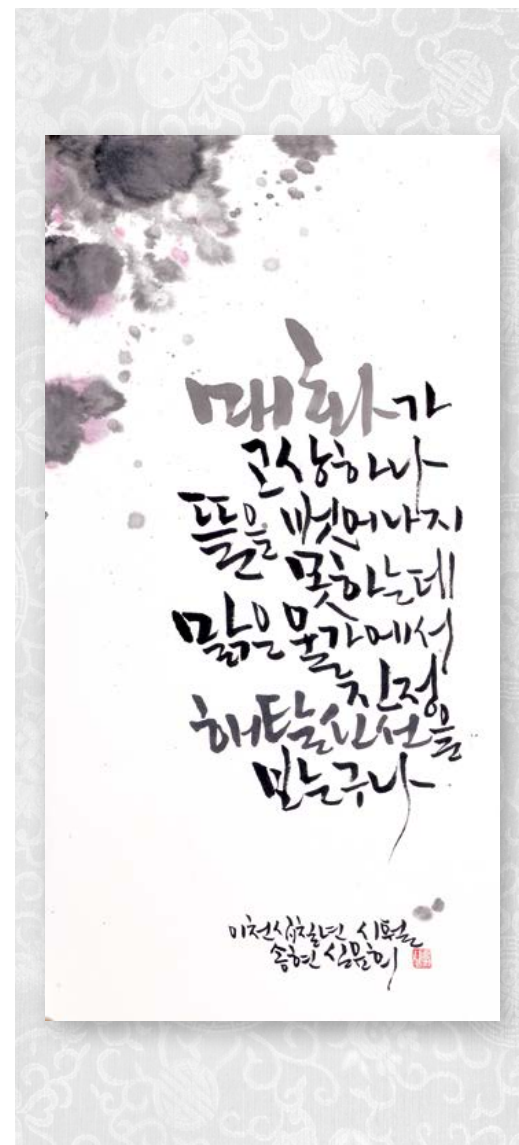
김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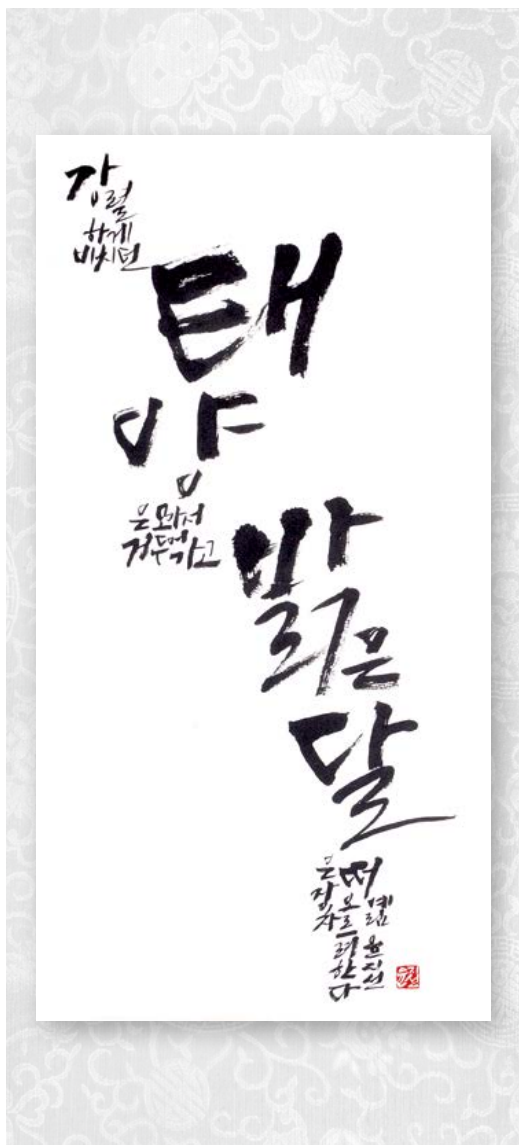
백정경



백현지



심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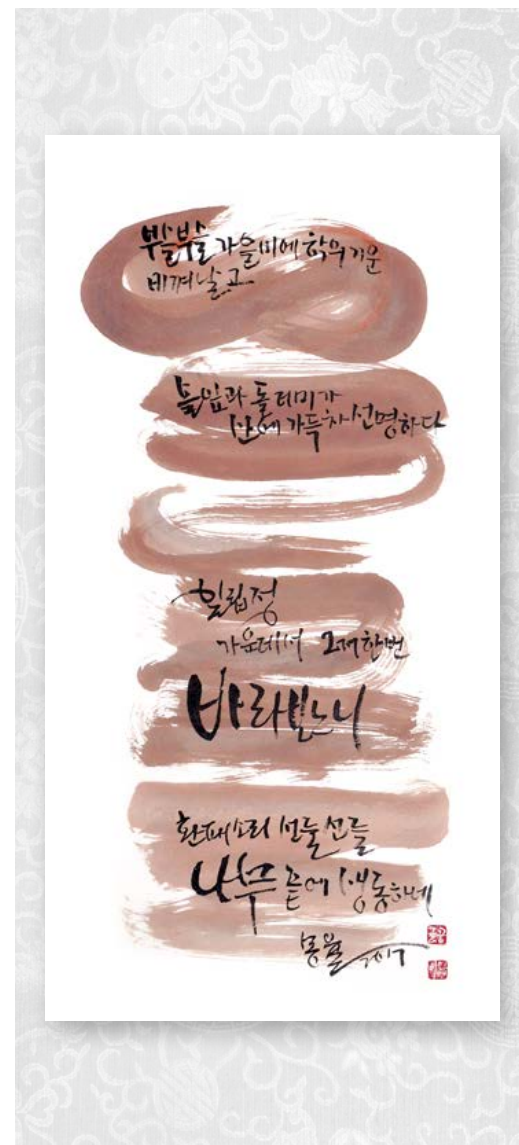
윤 지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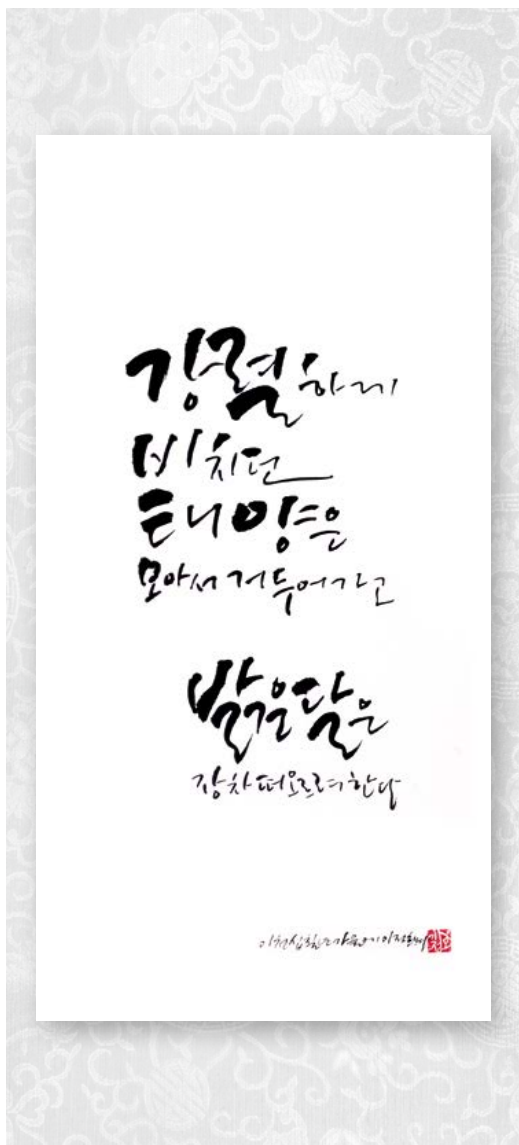
이 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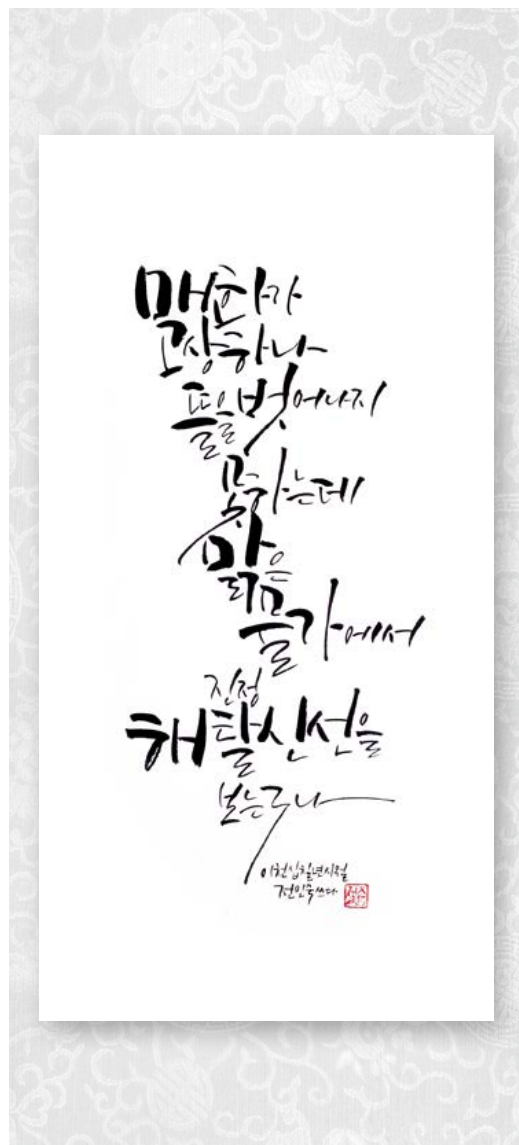
이 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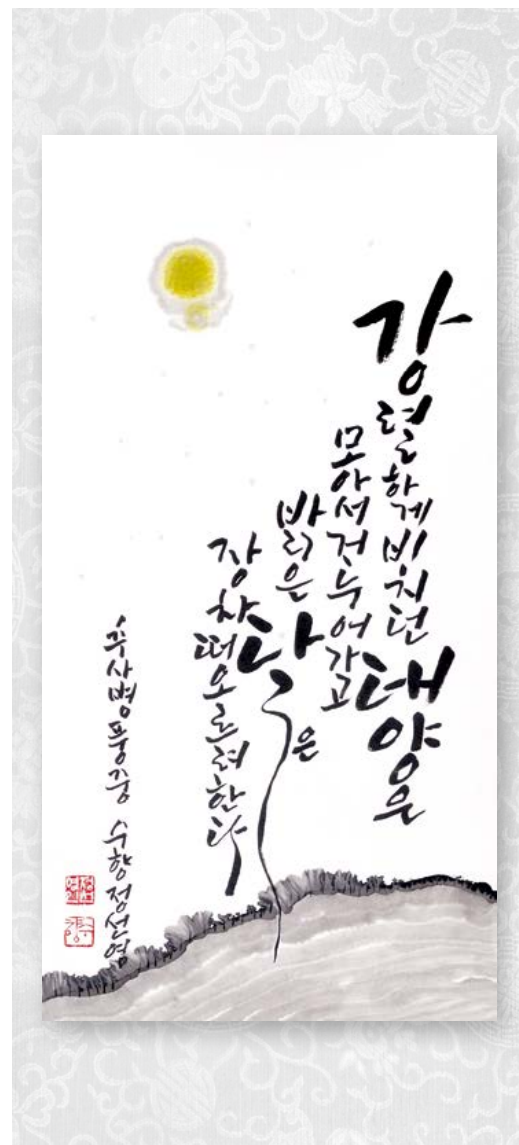
이 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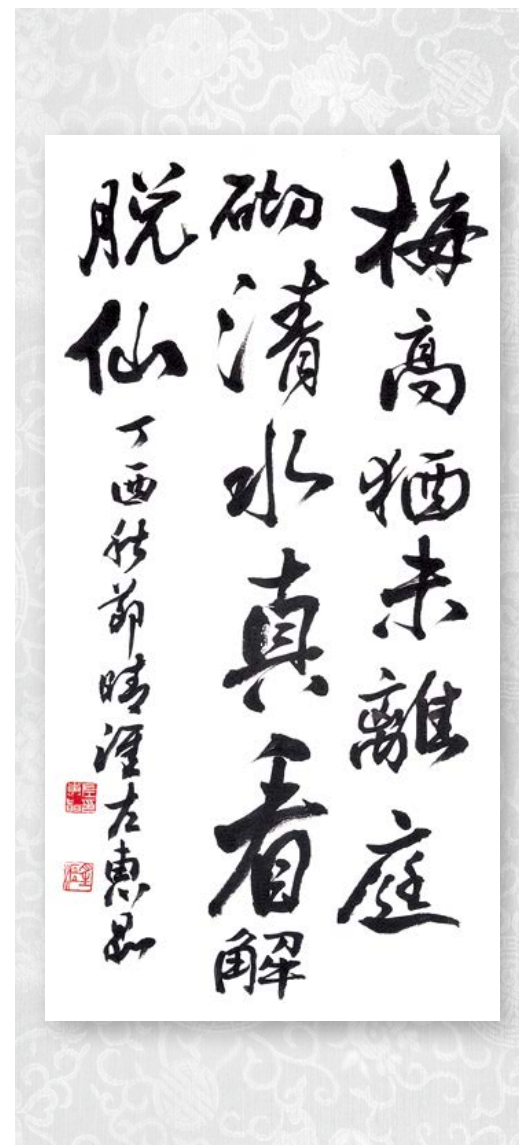
이 정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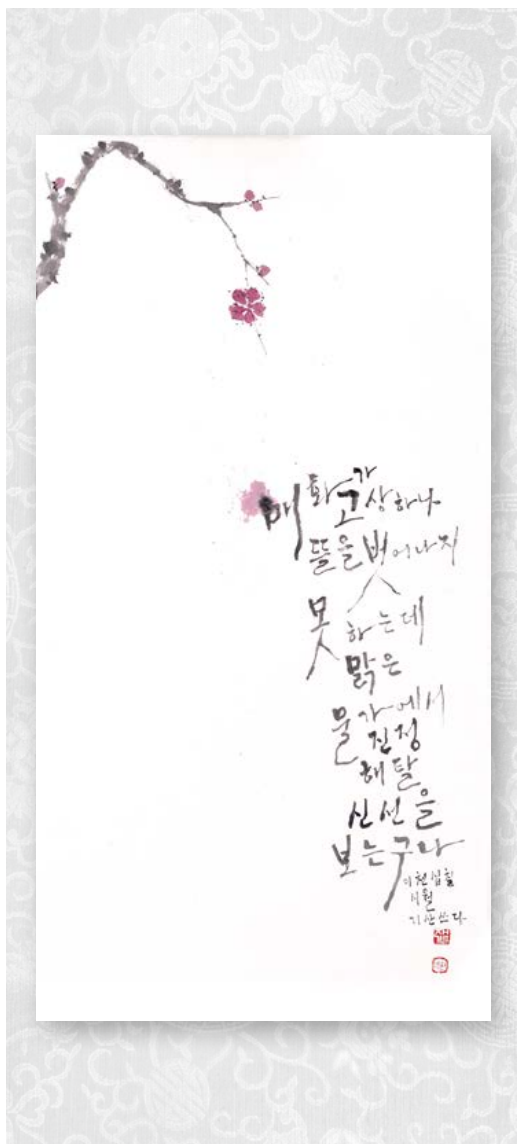
전 인 숙



정 선 영



좌 혜 정



한 재 길